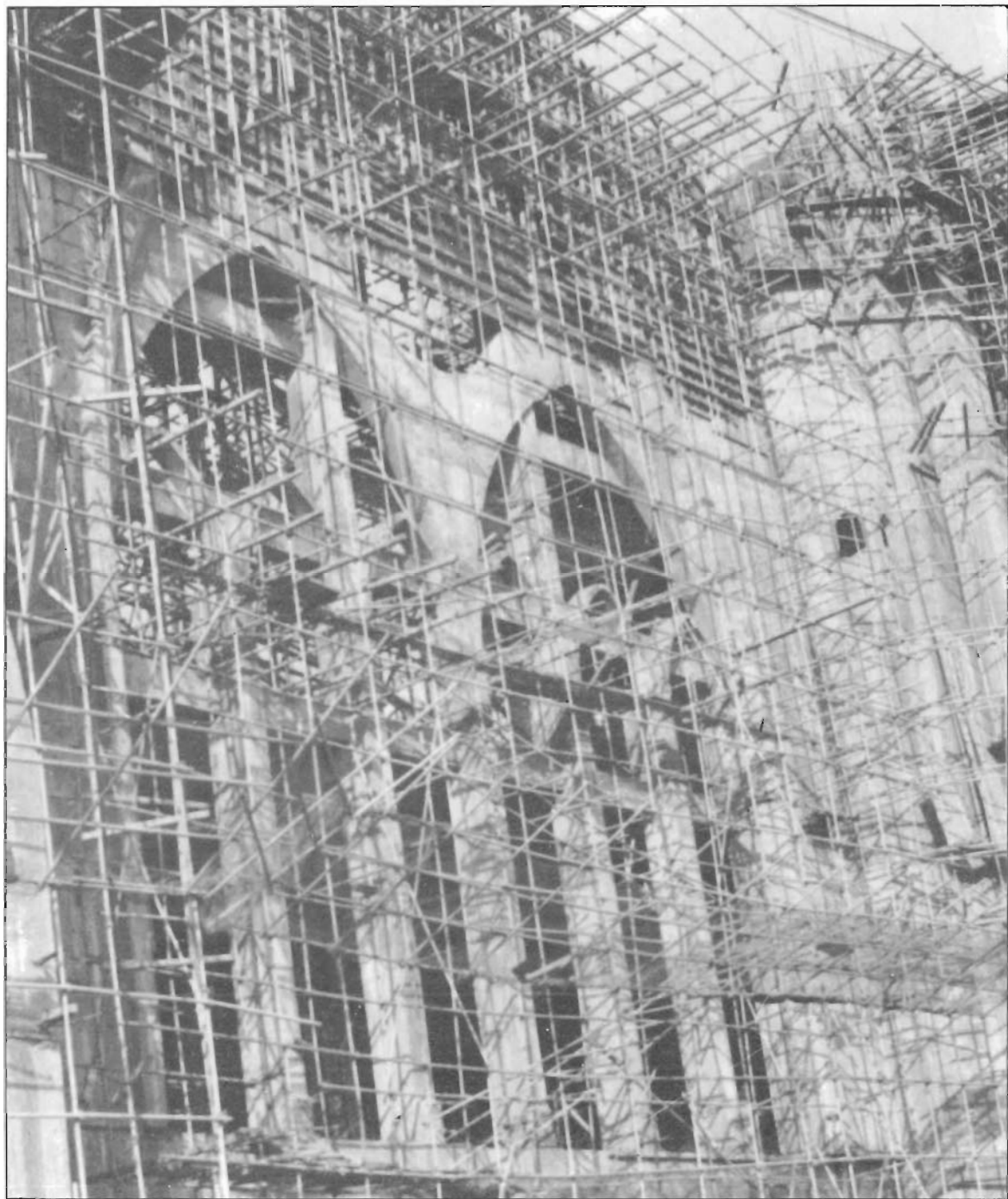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12**월호



'81년이여 안녕!

- 우리 주님의 나심을 송축(頌祝)하며 -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교회적으로 혹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용돌이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했던 81년이였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절망과, 좌절, 실의에 빠져 삶의 의의를 상실할 수 밖에 없는 나날이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복있는 은혜와 사랑이 안위와 인내, 그리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1. 생활의 반성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영역이 모범된 생활과 신앙적 실천으로 점철되어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도리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참된 용기, 그리고 새로운 생활패턴을 정립하고 극대화하는 지혜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이유가 신년초 계획했던 1년간의 모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에 그치거나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간혹 있었음을 반성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얼마만큼 기도생활을 했으며, 성경공부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전도생활에 시간과 정력을 바쳤는지가 의문스럽다.

마땅히 십일조 바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 교회봉사, 이웃 불신자의 복음화 내지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의무인 줄 알면서도 형편상 혹은 믿음의 연약성 때문에 게을렀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담과 눈물의 정성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무례한 신앙생활, 남의 눈치나 살피며 이기주의적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순간순간을 채워 나가려는 안일한 믿음생활이 신앙성장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본다.

이제 81년을 마무리하려는 찰나에 지난 날의 못된 습관, 움켜 잡지 못한 육신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불의한 행동등에 자책감을 갖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대 변혁의 용기가 필요하다.

2. 부흥에의 감사

한편 교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부흥이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한다.

교회 5대목표에 준한 우리들의 의지가 실현되어가고 있다.

10년동안 기도와 물질로 바치고 힘써온 논현동의 새성전 건축이 지난 11월 상량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교우들의 정성이 집약되었고, 총동원 전도 확산운동으로 교인 배가운동에 일익을 담당케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와함께 천국일군 키우는 일의 한 방편으로 성경연구원을 통한 성경공부가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어 믿음생활에 촉진제가 되었고, 당회장 목사님의 해외여행서 외쳤던 북한선교 및 공산권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흑암의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81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게 된다.

1만 교우들의 승리의 대합창이 「할렐루야」의 화음과 함께 멀리 전해지며 조용히 막을 내릴 것이다.

3. 성탄을 기뻐하며

12월은 성탄절이다.

이 세상 만민들의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송축하며, 두 손들어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싶다.

최악 가운데서 해매었던 나와 우리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유대왕 베들레렘에서의 「메시아」 탄생은 약속의 성취가 되었고, 괴롭고 고독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인생들의 참된 인도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지나친 허례허식을 삼가고 광란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중해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을 교묘한 밤의 큰 별의 경배보다는 상업적 수단과 인위적 작태로 지새어 왔음을 해마다 목격해 왔다.

이것은 참된 경배가 아니다.

이번 성탄절은 교인 스스로가 모범된 행동으로 주성탄의 참된 경배 방법을 일깨워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는 메신자가 되어야겠다.

“저기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재림주를 맞는 마음가짐으로 성결된 성탄절을 맞이하자.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11호 통권94호

- 12월호 차례 -

권 두 언	'81년이며 안녕 /	손경수	2
이달의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김장인	4
성탄동화	예수님의 안정	강정규	6

월간 충현

□ 특집좌담 / 회고와 전망...한 해를 보내며 □

- 새 성전 시대를 맞으며.....김하진·조산근·김차생·손경수·김종주·오태용·이형수·조현명 8

새성전현황	상람예배를 드리고 나서	최 환	16
주요일지	1981년도 주요일지	편집부	21
특집화보	새성전 상람예배	편집부	22
편집실칼럼	새해의 문턱에서	이형수	26
찬송가감상	한 밤에 양을 치는 자	김하진	26
도서정보	도서특강	도서실	27
책소개	기도와 영력	이형수	27
칼빈주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⑫	김하진	28
권할수첩	권찰들의 전도	김원남	31
신앙수필	별	조현명	32
해외선교	해외선교지·선교사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34
새교우	11월 중 새교우·결혼·별세자 명단	편집부	36
교계소식	월간교재 뉴스	편집부	37
교회소식		편집부	38
12월행사		편집부	42
편집후기		편집부	42
표지설명	1981년은 새성전 건축에 열과 성을 다한 해였다. 기공예배를 드린 지 1년 7개월만에 골조공사를 마무리짓는 상람예배가 드려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능히 극복할 것이다. 금년을 보내면서 새성전 본당 정면의 한 부분을 담아 우리의 노력을 살펴본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 9 : 9 - 1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참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사람이 되는 복을 안겨주시려 오셨습니다.

오늘날 40억이 넘는 지구의 모든 사람을 모두 다 조사해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참된 지식의 소유자, 참된 자혜자, 참된 권위를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 : 10) 많은 적은 간에 때가 묻은 불완전한 인생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참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권위,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지식과 수양만으론 안되나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교만을 버리고 나야와 믿음으로 복종하고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2.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봉사하는 법을 보여 올바른 봉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 오셨습니다.

(1) 땅위에서의 봉사는 어떠합니까

땅위에는 여러가지 봉사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높고 낮은 지위 때문에, 또는 인생문제 때문에 봉사하게 됩니다.

(2) 예수님의 봉사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때문에 인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예수님의 봉사는 첫째, 이해 관계가 없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봉사는 지위 관계를 떠난 겸손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높으시며 영광스런 존재이신데

이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옷을 벗어 걸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지닌 큰 지위와 계급장을 빼어놓고 봉사해야만 남을 위한 참된 봉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봉사는 인정 관계를 떠난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생명(영혼)을 사랑하는 봉사입니다. 악마의 손에 잡힌 생명을 건져 천국에 옮겨주려고 갖은 정성을 다 쏟으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봉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생과 낙을 다 떠나서 십자가에 못박히는 죽임의 장소에 나가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서나 직장에서 또는 나라일로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수지를 맞추는 봉사나 세력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봉사라면 때묻고 값이 없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나는 희생되어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봉사라야 합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봉사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후손들에게 복의 기쁨을 마련해 주는 올바른 봉사자로 참 일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생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할 가지각색의 적고 큰 문제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1) 근심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주고 환자의 근심은 의사가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못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해서 쌓이는 것이 근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근심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워 편히 쉬겠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근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어 근심을 기도로,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셨읍니다.

(2)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은 공기로 인하여, 음식물로 인하여, 또는 유전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나 정신 신경 문제로 오는 병이 그중 6할이 넘는다고 합니다.

병은 근심 때문에 슬퍼져서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쇼크나 신경질, 괴로움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신앙으로 병을 고친다는 말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질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3)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자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게끔 강해집니다. 이미 범한 죄를 회개하고 낙심하지 말고 용서받는 걸음을 걸읍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유혹을 사전에 막아버리고 범한 죄는 회개하여 죄를 씻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죄악의 습관되었던 것까지 떼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읍니다.

(4)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읍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외로운 죽음의 문턱, 남편도 아내도 얼마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 무서운 그 문턱 앞에서 누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소망한 자로 강하고 담대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지혜자로 힘있게 일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육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에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주시려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생은 주안에서 바로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카드나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맞이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임금님으로 모시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소를 인간의 최악된 곳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품안으로 인격의 주소를 옮기시렵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주소를 예수님의 품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악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개인이나 가정의 근심, 질병,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다가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님 마중 나와주시므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엄마는 금새 걱정이 되어 지직지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아니, 하나만 더 주면 괜찮아요.」

나는 빙긋 웃으며 손을 내밀니다.

「그래, 자식두...」

엄마는 빵 한개를 또 주십니다.

「많이 팔았어요?」

나는 빵을 다 먹고 엄마 곁에 앉아 동전 헤아리는 참견을 합니다.

「가만 있어라. 애, 하나, 두울-」

「아냐, 이진 5원짜리야. 엄마.」

나는 5원짜리 동전을 골라냅니다.

「그렇구나.」

나는 엄마의 눈이 어두운 것이 걱정이*됩니다.

(안경을 빨리 사드려야지.....)

나는 안주머니에 있는 저금통장을 만져봅니다.

「엄마, 혹시 저스름돈 줄 때도 잘못 주는 거 아냐?」

「그렇잖아도 오늘 낮에 어떤 청년이 되돌려 주면서 알려 주더라.」

「엄마 빵장사 엉터리로 하는구나.」

「그렇리야 있지?」

나는 다시 안경을 빨리 사드려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나가 집에 오는 날은 버스를 줍니다. 학교에 가고 올 때 버스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마라톤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지요.

떨어진 운동화를 철떡거리며 뛰어가다가 누나에게 들킨 적도 있지만 나는 손을 흔들어 주며 더욱 신나게 뛰었습니다.

나는 차비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안경 말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디오입니다.

엄마는 판소리와 수심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생각에 혼자 훌쩍거리곤 하셔서 눈까지 진물렸지만 수심가나 판소리만 나오면 흥얼대시기까지 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길목도 좋아서였지만 라디오방이 있는 저쪽 시장

골목에 포장을 치셨는데 나오라는 판소리는 안나오고 뽕뽕 소리나 지르는 미국 노래가 나오는제 일쑤여서 교회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라디오를 사드릴까, 안경을 사드릴까?)

나는 잠시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예배당에서 찬송가가 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연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야, 저 예배당에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요새는 참 듣기 좋구나.」

엄마가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 우리도 예배당에 갈까?」

「뭘, 어디를 가자구?」

「아이, 엄만 귀까지 어둡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연탄불을 보고 숙제도 하다가 오늘밤엔 백원을 더 벌어서 오늘 길가에서 본 돌보기를 사드려야지.

밤마다 수도꼭지에 걸다란 고무 호스를 꽂아놓고 스케이트장에 물을 대주는 것을 거들다보면 손 시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만 참으면 엄마 안경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와 숙제를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산비탈 우리집으로 나를 찾아 오셨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차림새입니다.

그분의 사진 속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학교 옆 골목에 안경 쓴 신기로 할아버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경을 벗어서 나를 주십니다. 안경을 벗자 예수님의 눈은 엄마의 눈과 같이 눈알이 진물러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눈물을 많이 흘리신 모양입니다.

나는 뭔가 묻고 싶기도 하고 무엇인지 말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안경을 든채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으셨는데 그것은 아주 따뜻하고 마음이 한꺼번에 놓이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 회고와 전망 / 1981년을 보내면서

= 편집위원 특집 좌담회 =

새성전 시대를 준비해야

일 시 / 1981년 12월 12일 오후 7 - 10시

장 소 / 월간 충현 편집실

참석자 / 김 하 진 목사<심방담당·성가부지도>

조 선 근 장로<해외복음선교회 서기>

김 차 생 장로<교육위원회 위원>

손 경 수 집사<전도위원회 위원·청년부 부감>

김 종 주 집사<남전도회 지육부 차장>

오 태 용 집사<대학부 교사>

이 형 수 집사<월간충현 편집부장>

사 회 / 조 현 명 장로<월간충현 편집위원장>

사회자 / 금년도 어느덧 다 갔읍니다.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각분야별로 한번 재조명해 보며 반성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일이 필요한 줄로 알아 이번에 이처럼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자리는 월간 충현을 위해 1년동안 수고하신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동안 교회내외의 많은 일들을 골고루 알고 있는 분들이 편집위원들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기에 보다 격



사회 / 조현명 장로



의없이 사실을 보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 문입니다.

보다 귀한 말씀들로 교회와 월간 총현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근 /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이야기의 중복과 보다 순서있는 이야기를 위해 실무를 맡아 수고한 이형수 집사님이 교회내의 전반적인 면에서 금년에 있었던 일을 한번 간주려주면 좋겠습니다.

이형수 / 12월호를 편집하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지요.

교육분야에서는 성경학원이 해체되고 성경연구원이 새롭게 발족되어 전교인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는 점과 교육위원장 윤형철목사님이 8월 말에 미국으로 유학차 떠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면에서는 금년의 총동원전도가 예년과 달리 전 교인이 참여하여 전도하는 분위기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당회장 김장인목사님의 주간설교집을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산하 산업전도회에서 동적종분야의 모임인 의료인, 섬유인의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

겠습니다.

해외선교면에서는 금년에 일한번째로 칠레에 유재일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선교실무자들이 3개월에 걸쳐 해외 각 선교지를 순방할 수 있었다는 점과 홍콩의 홍종만 목사님이 귀국하시게 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은 아마도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결실 속에서 행해진 일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의 기공예배후 만 1년 7개월만에 상량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외에 금년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의 해외유학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점 등을 의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먼저 금년도 우리 교회의 교육면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은 바와 같이 금년도 초에 성경학원을 해체하고 총현성경연구원을 발족하여 전교인 성경공부를 위하여 매일 저녁 성경강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차생 / 우선 외적으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600



김 하 진 목사

저는 성경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성공여부를 유능한 감사, 합리적인 학생관리, 충실한 교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반성하며 평가해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태 용 집사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배우려는 열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교제가 결여된 성경공부 때문인 것 같습니다.

~700여명이 모여 성향을 이루며 교회전체가 성경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인원은 줄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시정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김하진 / 저는 성경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성공여부를 유능한 강사, 합리적인 학생관리, 충실한 교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반성하며 평가해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교육기간입니다. 현재와 같이 6개월을 한 학기로 한다거나, 한 과목을 2~3학기까지 연장시킬 때 학생들의 입장과 교육효과면을 고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을 한 학기로 한다거나 하여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직 · 관리면에서 세밀히

김차생 / 저금 김하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체제를 학교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학생관리를 위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야지 강의를 듣는 사람도 분명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잘하면 많이 모이고 강의를 잘 못하면 별로 안모이는 경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교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임을 볼 때 이런 면에서도 보다 구속력이 있는 학생 및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주 / 최근에 각 교회마다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에 (예)를 살펴보면 상호 보완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선근 / 그런 교회들을 살펴볼 때 주로 그룹별 성경공부(Group Byble

Study)를 통해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룹인도자(Group Leader)를 키우는 일을 해서 그 그룹인도자가 성경공부 그룹을 인도해 나가도록 합니다.

김하진 : 그렇습니다. 그룹인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경향을 볼 때 그동안은 부흥회를 통해 성장 발전했고 근래에는 성경공부를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공부의 중요점은 조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룹 성경공부가 주요 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성경공부 인도자를 빨리 키워서 그들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때 교인들이 활성화되고 교역자가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어서 좋다고 봅니다.

교제를 겸한 그룹성경공부로

오태용 /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배우려는 열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못거두는 것은 교제가 결여된 성경공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생활에 나가서 적용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조장로님이나 김목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경공부 방법을 그룹으로 바꾸어 교제를 겸한 성경공부를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손경수 / 하여튼 전교인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열심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금년도 전교인 성경공부의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회자 / 전교인 성경공부는 그렇다고 하고 주일학교분야를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김차생 / 주일학교는 매년 이야기되

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교육위원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또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전문적인 교육위원장이 없었고 또한 그나마 도중에 미국 유학함으로써 공백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동안 그런대로 체계 잡힌 것이 있어서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줄로 압니다.

조선근 / 전문적인 교육위원장이 얼마나 시급하며 중요한 것인가는 매번 지적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지요. 다시 한번 내년을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국내전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지요. 그동안 국내전도라고 할 때 개척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여 자립시키는 일이 큰 일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형편입니까. 지난 해부터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권고로 강원도 오지에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시작해서 몇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는 새로 시작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개척교회 외에도 새롭게 국내전도를 위해 시도한 일이라든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수 / 제가 전도위원회 위원으로 1년동안 지켜 보았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제안으로 강원도에 4,5곳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지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 당회장 김목사님의 의견이었고 모두가 그 의견에 찬성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척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지요. 첫째는, 교역자의 이동이 너무 잦은 점과 그나마 강원도 오지로 가겠다고 나서는 교역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교회건축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건상 교회건축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역자문제입니다. 광고를 내도 강원도 오지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농어촌으로 갈 교역자 없어

김차생 / 이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지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아마 교단적인 문제로 교단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모 교단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시골목회 2년 이상의 실력을 쌓아야 목사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너무 안일해지기 쉽고 실제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목회는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며 교단의 10 000교회 운동도 어렵게 됩니다.

만약 교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우리 총현교회에서 만이라도 이런 규정을 세워 시행했으면 합니다.

조선근 / 농어촌교회의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의 부흥,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조, 협조하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도시교회의 부흥의 한 원인은 농촌교회 교인이 도시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손경수 / 또한 교역자를 농어촌교회에 파송할 때 교역자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생활에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제



손 경 수 집사

그런데 무척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지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역자문제입니다. 광고를 내도 강원도 오지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시교회에서 해 주지 않으면 농어촌지방에서 교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매월 10~15진씩 들어오는 보조정원도 모른 채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태웅 / 우리 교단의 목표인 10,000교회 운동에 부응하려면 자꾸 세워야 하는데 이런 면을 참작해서 우리교회의 내지전도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즉 가능한 곳을 자꾸 개척해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손집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한 생활비와 교육문제등을 해결해 주면서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지전도는 각 부서가 분담해서

조선근 / 오지전도에 대한 당회장 김목사님의 착상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시 행해 보니 몇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강원도에 갔다 오자면 하루 가지고 안 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도나 또한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원도같이 먼 곳은 교회자체에서 맡아서 개척하며 관리하고 서울 근교에는 여전도회가, 그 중간되는 곳은 남전도회나 기타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분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김종주 / 금년도 전도위원회의 일종 특기할 일의 하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총동원전도였다고 봅니다. 전교인이 직접 전도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전도를 통해 새신자가 많이 생겼고 온 교회가 전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결신자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만 다른 해에 비해 좀더 구체적이고 성과있었던 총동원전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해외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최근에는 한 해에 1~2명씩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고 금년에도 유재일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 되시는 조선근 장로님께서 금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을 간추려 주시지요.

조선근 / 지난 해에 김재창, 금년에 유재일 목사를 각각 파라과이와 칠레에 파송했고 또한 해외복음선교회 지도인 김영휘 목사님이 홍콩을 다녀왔고, 금년에는 해외복음선교회 회장인 최석주 장로님과 지도인 김영휘목사님이 본교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지들을 모두 탐방하며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오신 것이 꼭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선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 셈입니다.

김차생 / 해외선교는 늘 주먹구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여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니 그들에 대한 계획, 관리, 지원을 위해서도 선교전문가가 이 일을 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자가 해외선교현장을 탐방한 일은 고무적인 현상

조선근 / 해외선교에 대해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향을 따르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목사님은 해외에 다니시면서 선교사 파송의 문제가 지금



조 선 근 장로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원도같이 먼 곳은 교회자체에서 맡아서 개척하며 관리하고 서울 근교에는 여전도회가, 그 중간되는 곳은 남전도회나 기타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분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을 느끼고 파송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시급한 시기에 우선 파송하고 생각하자는 것이 목사님의 방침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선교 10년이 넘었고 점차적으로 많은 제제를 잡아간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 실무자가 해외선교지 탐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감있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하진 / 그렇지만 김영희 목사님이 곧 미국으로 유학가시게 되면 또 공백이 아닙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선근 / 사실 그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김차생 / 금년들어 3번째 미국 유학가는 것인데 물론 장기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다 좋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게 되기에 그 공백을 메울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큰 타격입니다. 해외선교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몇년동안 이 일을 담당해 온 김영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게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경수 / 교회내의 부목사님의 이동은 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물론 본인들도 이 일에 신경을 써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유학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김종주 / 또한 해외에 유학을 시키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은 여러가지 삼음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외 유학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공평한 심사를 거쳐 했으면 합니다.

김차생 / 그렇습니다. 미국이면 좋다 아무 학교나 가서 공부해도 좋다는 식이면 유학을 보내놓고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오태웅** / 아까 손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내 부목사님의 이동에 좀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초의 경우 심방목사님들이 전원 새로 오신 분들이고 여전도사님도 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편되어 교인들이 정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특수업무를 담당하던 부목사님들의 갑작스런 이동으로 발전해야 할 부서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에 있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자 / 새성전 건축으로 넘어가지요. 금년엔 모두가 힘을 합해 새성전 건축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의 상량예배시 보여준 성도들의 열심은 굉장했다고 봅니다. 새성전 건축과 앞으로에 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선근 / 지난 해 좌담회에서는 골조공사를 마무리짓고는 단계적으로 즉 본당-교육관-선교관순으로 내부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김하진 / 금년말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년 2월부터 내부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복사님 말씀이 내년 9월에는 미완성된 상태이지만 그곳으로 이주해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경수 / 어차피 교회를 짓게 된다고 볼 때 이제 새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보다 지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짓는 본당이 7,000~12,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좌석인데 이만



김 차 생 장로

금년들어 3번째 미국유학가는 것인데, 물론 장기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다 좋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게 되기에 그 공백을 메울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큰 타격입니다.

한 교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전도위원회에서 전교인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성전 이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미리 준비해야

김종주 / 그렇습니다. 지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나 하나 정리되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내년 9월이면 금방인데 그때가서 급작스럽게 생기는 문제를 놓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태용 / 그동안 당회장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통해 느끼신 것들이 많고 또한 이런 면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김하진 /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구체화시킬 수는 없겠지요. 먼저 새 성전 이전의 문제는 조직의 개편이랄까 이런 면에서 미리미리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조선근 /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리하여 밑에서는 그것을 받아 행해 나가는 것, 또 하나는 밑에서부터 각 부서의 필요와 계획을 작성하여 위에서 결정하는 일, 어쨌든간에 각 부문별로 새 성전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차생 / 이미 장로님들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 성전건축 이전계획을 세우며 모든 준비를 하는 기획담당부서가 생겨서 이 일을 하나 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그 필요를 인정하면

서도 그 힘을 모으고 구체화할 조 직부서가 없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긴급동의-새 성전 이전을 위한 기구 발족

김종주 /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교회에 긴급동의하고픈 생각입니다. 새 성전건축 이전 준비위원회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해서 기획담당부서를 발족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며 새로운 면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읍니다.

이형수 / 또한 각 부서와 부문에서도 자체내의 문제를 예상하여 생각해서 그런 기구가 생겼을 때 충분히 반영시킬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 성전 이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건물의 관리와 인원의 관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건물과 인원을 맡은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생각할 문제이지 모두가 그 문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전도, 교육, 심방, 해외선교, 출판, 성가, 기도원등의 모든 부서가 현재 10,000명 수준의 교인에서 20,000~30,000명 수준과 그 이상의 수준으로 대형화될 때 현재의 일하는 방법 가지고는 그런 수준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차생 / 새 성전으로의 이전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강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주할 경우 받을 영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회자 / 새성전 이전을 위한 준비위원회나 기획부의 발족을 긴급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끝내기로 하지



김 종 주 집사

정말 이 문제는 교회에 긴급동의하고픈 생각입니다. 새 성전건축 이전 준비위원회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해서 기획담당부서를 발족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며 새로운 면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읍니다.

요. 마지막으로 월간 충현의 발전을 위해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지요.

조선근 / 먼저 월간충현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김하진 / 밖에서 월간충현에 대한 평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곳을 보내 주는데 전부가 호평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 전화와 편지로 감사하다는 내용이 옵니다.

조선근 / 아마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앞서가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면에서 무척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외부에서 큰 인기인 월간충현

김종주 / 저도 매월 기독교실업인회에 배포하는데 좋은 평입니다. 그런데만 교회 회지에 비해 딱딱하고 무겁다는 평이었읍니다.

김하진 / 최 환집사님이 쓰는 건축관계의 글은 무척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짓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무척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김차생 /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글을 쓰는 것도 다양한 필자를 개발한다는 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김차생 / 앞으로 월간충현이 보다 대중화, 보편화되어 신앙교양지의 성격을 띠고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그 실행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손경수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권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즉 기사선택의 자유나 필자 선정의 자유 등이 주어

지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선근 / 그런 면을 떠나서도 우선 금년에 현재 4×6배판의 책을 국판 정도로 체제개편을 하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부 필자를 사용하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3~4년내에 예산의 독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종주 / 저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 월간충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월간충현이 전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는 곧 충현교회가 미치는 영향이므로 잘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편집실무진의 잡무가 너무 많아 편집에 전념할 수가 없고, 둘째는 편집위원들이 공사간에 분망하여 월간충현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셋째, 필진의 문호 개방이 이루어져서 교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타교단의 유능한 필자의 글을 실릴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하며, 넷째, 교회내의 독자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월간충현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과 사명인 줄로 압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충현지로 키우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맡았으니 좀더 열심과 정성을 다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귀한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정리 / 이 형 수 집사

(월간충현 편집부장)



이 형 수 집사

현재 10,000명 수준 교인에서 2,30000만명 수준과 그 이상으로 대형화될 때 현재의 일하는 방법가지고는 그런 수준을 담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성전 상랑예배에 참석한 충현교회 성도들〉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현장 감독)

우리가 성전건축을 염원하여 착공을 한지도 벌써 20개월이라는 세월이 이미 과거로 흘러갔다. 금년 한해동안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결산하며 이제까지 성전건축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고를 드리고 성전 건축의 완성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① 새성전 건축이 상랑예배를 드리기까지.

② 우리나라의 성전건축의 현실

③ 성전건축을 완성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1. 새성전 건축이 상랑예배를 드리기까지.

논현동 마루턱에 땅을 파헤치는 중기 소리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벽석거린지도 햇수로 2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철골트러스 조립하는 리벳트 함마소리로 바뀌어서 현장 주위를 소란케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소리이며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저 소리는 전세계, 공산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로 들리는 듯하다. 이 재건의 함마소리는 천국을 재건하는 일군을 양성시키는 소리요, 우리나라의 전 민족까지 복음화하는 소리, 우리교회 당회장님으로부터 전 교인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이 우리 충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소리인듯 느껴지는 것이다.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종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건물에 사용되어질 건축자재나, 장비나 기구를 사용하고 부착하고 혼합하여 작품의 1이 완성된다면 여기에도 사람의 노력과 기계의 활용이 배합되어야 한다. 우선 최고의 건축자재,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는 고급품이라기 보다는 견고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재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지혜와 실험이 뒤따른다고 보겠다. 방수제다 하면 그 제품을 소개하는 회사나 그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은 우수하다는 것만을 말할 수 밖에 없으나 이를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그 1이라는 상대 거리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

는 환경과 시기와 장소를 분석하고 적재와 적소를 맞추어 다시 확인하고 음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초를 팔 때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어떠한 토질인데, 설계한 기초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등, 최소한 이를 담당하는 현장의 건설회사팀의 기술자나 감독하는 기술자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소정의 기초되는 지식과 여러가지 참고도서에서 보아온 얼마간 지식을 합한 것을 이론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이 이론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현장에서는 30%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자기가 기술자라면 작은 주택에서부터 고층의 빌딩과 작은 집회건물로부터 대단위의 집회장 건물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숫자 이것이 또한 30%라고 보겠으며, 여기에 또한 아무리 학술적 지식이 많고 경험적 실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실을 요구하는 열의와 근면과 인내가 40%를 차지한다고 단정하고 싶다. 이러한 이론적 사실은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되어 진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여건의 균형이 더욱 맞지않는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위에서 말한 사실과 같다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느낀대로 말한다면 쉬지않고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구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바쳐야 하겠는가, 현재는 그 건물이 얼마만큼 건축이 되었는가, 이 건축을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 건축하는데 금전적인 차원과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모르면서 기도하기보다 앞서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여 나름대로 성전건축 기술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 생각



〈현재 본당 전면〉

을 해 본다.

여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기초공사에서부터 공사의 현황을 볼 때 본당의 기초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암반으로 깔려있어서 완전한 반석위에 건물을 배치했다고 보겠으며 그외에 선교센터나 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배열도 지반이 양호하다고 하겠다. 일부 구름이 있는 부분과 연약한 곳이 발견된 부분은 기둥을 5내지 6을 묶어서 온통기초(약 50평 정도)로 처리가 되었으며 지하실의 배수방법은 자연배수 방식을 사용했으므로 방수에나 배수에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다.

현재에는 골조공사만 진행되고 있으나 교회는 앞으로 1,000년 대개를 바라보고 설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중 관계나 내용연한 문제로 일반건물보다는 견고하게 설계하고 건축되어진 것이다.

새성전 건축이 1980년 4월 8일부터 상량예배까지는 총공사일수가 584일이 걸렸고 공사에 동원된 총 인원수가 55,041명이었으며 이 공사에 사용된 장비는 도자와 쇼벨이 1,236시간, 콤팩트사가 699시간, 이제까지 소요된 주요자재 현황을 보면 세멘트 151,575포, 철근 2,528톤, 자갈 2,830차, 모래 1,870차, 철골재 240톤, 지하에서파내간 흙이 총 12,398트럭(8톤트럭), 레미콘 2,321m³ 등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대단위 공사이며 위험한 공사를 하면서 이렇다 할 큰 사고도 없었으며 다만 본교회 재직중인 장봉순 집사님께서 열심히 콘크리트 감독중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다쳐서 3개월간 치료를 받는 부상이 있었으나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언제 부상했던가 할 정도로 깨끗하다. 이분은 성전건축하는데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현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때



문에 이제까지 위험한 중에도 무사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공 1명, 목공 1명이 약간의 부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제까지도 많은 기도를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욱 위험한 일들이 남아 있어오니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우리나라의 성전건축의 현실

우리나라의 교회건축은 어떻게 해왔으며 현재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건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전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본인으로서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며 객관적인 면에서 생각해본 후에 충현의 새성전 건축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부합시켜 보고자 한다.

거의가 과거에 건축이 되어진 교회는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교회행정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기능적인 평면구성과 미적인 형태도 상당한 차원에서 모양을 꾸며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급한대로 건축한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표족당 형태를 구사하고 쌍종탑이 아닌 1개의 표족탑을 구성했으며 이것 자체도 전체 건물에서 볼 때 비례나 이를 구성하는 자

재도 붉은 벽돌에 함석(아연 도금판)으로 제작하여 올려 놓았다. 그러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나 건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이 영세적인 집회를 목적으로한 용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에서 1960년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교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1970년대에는 교회건물이 많아지고 과거에 있던 교회들도 그 자리에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었고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법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도시구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미관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기구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반 건축주들이나 공공 건축주들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면서 교회 또한 건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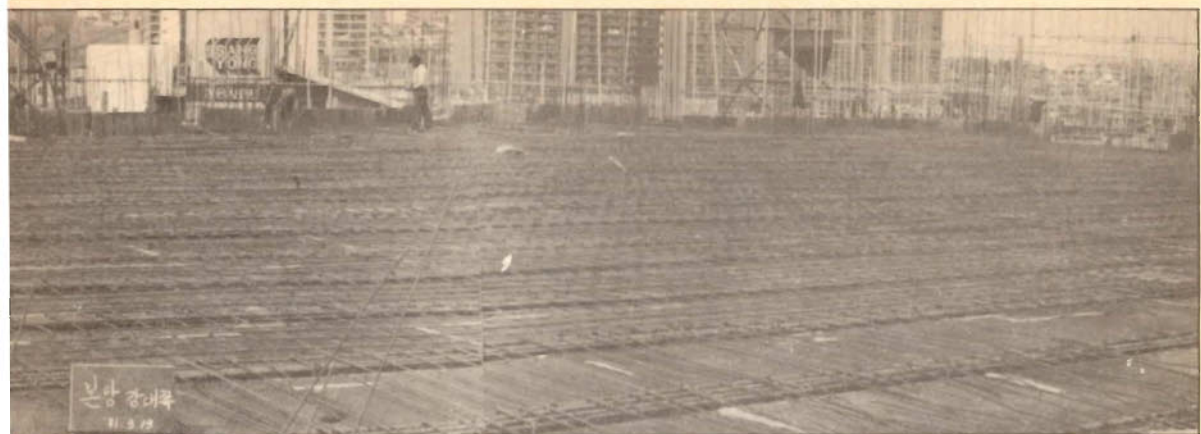
많은 교회 건물이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워지고 주로 서구나 구미에 건물모양이 많이 모방이 되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교회건물의 형태도 늘어갔다.

어떤 교회는 방주의 형태다, 어떤 건물은 십자가 형태다, 어떤 건물은 무슨 이미지이다, 하며 그럴듯 하게 이미지를 붙여 놓았지만 과연 교회건물로서 손색이 없는가 음미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70년 후반부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 각지에 지은 교회

건물들이 너무 무질서함을 통감하고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설계에서부터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해본 것이다. 한편 60년대나 70년대 건축했던 교회들이나 아니면 새로이 건축해야겠다는 교회들은 유행을 따르던 교회의 외관을 역시 교회는 각가지 이미지를 생각해서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서 설계했던 체육관 형태나 박물관 형태, 사무실 형태, 방가로 형태, 극장형태, 심지어는 식당이나 유흥장 같은 형태의 각가지 형태에 실증을 느꼈으며, 교회의 외관에서 풍기는 형태는 첫째는 교회에 교회다와야 되고 둘째로는 교회건물은 다른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야만 되는 건물과는 달라서 건물 자체에서 풍기는 신성함이 그 건물 자체가 10년이나 20년이 흘렀을 때 건물의 형태를 생각해야 되고 1세기까지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소위 외국에 유학을 해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득한 후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대화중에 이런 교회의 모양이나 평면형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 목사님의 지론이 현대적인 시대감각에 맞추는 것(즉 유행성)이 좋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이 건물이 20년 30년 지난후의 모양도 생각을 하셨는가 질문



〈본당 지하실과 주차장 슬라브 철근을 배근하는 장면〉

을 하니 그때가서 헐고 다시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교회건물을 좋은 나무에 비교하여 처음 건축해 놓을 때는 그 건물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20년이나 1세기를 지나보니 그 나무는 울창하고 거대하고 참으로 보기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베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길이 길이 보전하는 것이 많은 보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3. 성전건축을 완성하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졌는데 그 건물 자체에 그 건축가의 개성과 심혈을 쏟아서 그런지 마치 현대인들에게 공개하는 조각작품같이 피상하게 붉은 벽돌을 조각해서 설계를 하고 그 내부는 자연 채광이 아닌 간접조명(현대적 조명방법) 또한 톱라이트(Top Light)에 의한 가시광선을 이용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았는데 그리 크지 않은 교회가 음향장치를 아무리 유명한 일본 회사를 불러서 설치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건물을 목격했다. 그런 건물은 건축가가 자기의 주관

강제로 그 건물에 넣어서 개인적인 이미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차라리 도심지에 있는 교회건물이 아닌 유흥장이나 카바레가 제격이 아니겠는가?

교회 건물은 본인이 보는 견지에서 볼 때 첫째로 성도님들의 중심, 교역자들의 중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그 교회가 어느 시대에 처해있던 교회는 교회다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교회 건물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은 그들의 사상주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건축 목적이 교회거나, 교회답게 건축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은 교회 그대로인 것이다. 소련을 방문했던 어떤 외국인의 말에 의하면 소련에도 교회가 있는가 물으니 소련에는 교회 건물이 많아서 아까운 건물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데 참 가슴이 아팠다 하는 말을 들었다. 만일 그때 그 건물이 아무리 유명을 달리 했더라도 현대 우리나라 교회 건물처럼 그곳에 극장간판을 붙이면 극장이 되고 유흥장간판을 붙이면 유흥장이 되었더라면 아무리 목적이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헌금에 의하여 건축이 되어졌더라도 현실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되신 교회가 아니지 않겠는가?

세세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야되는 말씀중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TV장치나 조명장치나 음향시설이 말씀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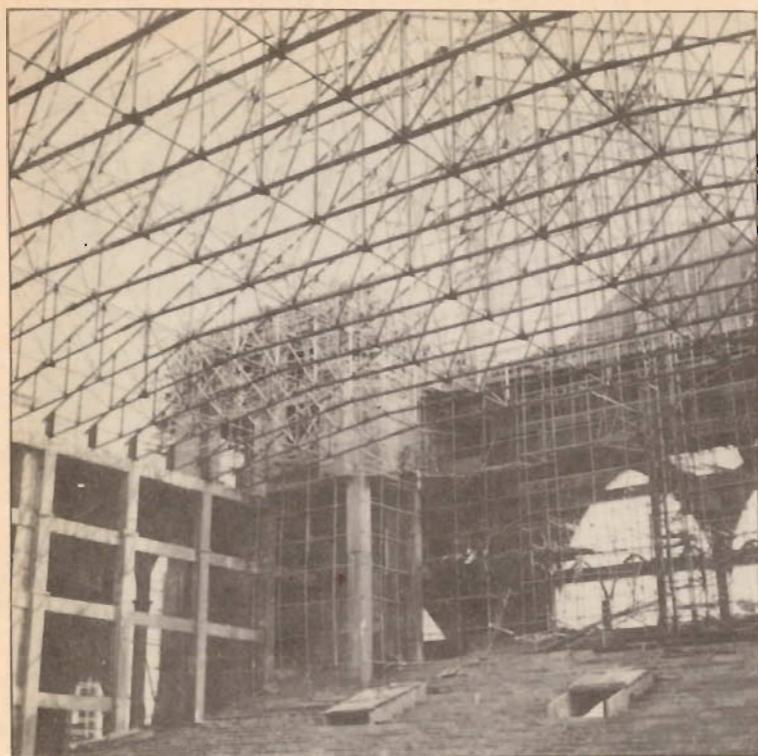
그러나 서구라파에 건축된 천주교(교황시대의) 건물은 그곳에서 스피카로 말하는 내용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위주가 아니고 제사를 드린다는 형식위주의 형식적인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바로 현대 교회의 설계를 건축가들이 이렇게 모양 위주로 설계하였다면 형식주의의 설계가 될 것이다.

둘째로는 교회는 성도들이 편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건물의 평면을 구성하는 동선이 잘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보러 들어오고 마치고 나가는데 빠른 시간내에 출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섯째로는 교통문제와 주위 환경문제와 위생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건물을 하나 완성하는 데는 특히 교회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상당한 이해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유명한 건물의 예만 보더라도 최소한도 50년이다, 100년이다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보지만 우리의 실정에는 맞



〈상람시의 지붕골조〉

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일대에 몇번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때는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북한선교, 아세아선교, 세계선교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건축을 하므로 전 세계에서 여러가지 예로 들었던 것과 같이 세계적인 교회는 세계속의 교회다와야 되

므로 기술적으로나, 교회의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행정적으로 확고부동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곤란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하여 당초 계획은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 시설면에서나 모든 계획이 휘바뀌어지는 문제로 설계상, 기술상 여

러가지 복잡하며 앞으로는 바꿀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작업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지적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의 기술적인 문제는 무시해 버리고 현재의 아집만을 내세운 관계로 해결을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돈을 아무리 써서 수정하려 해도 안되는 일이다.

둘째로, 현실적인 행정이 앞으로의 예측에 비추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주후로 미루는 일이라든가 당초의 계획을 용두사미적으로 흘려버린다면 전체적인 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옷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 격이 된다.

세째로 새성전 건축이 82년도부터는 내부장치와 장비계획과 각실을 배치해서 실시공사로 들어가는 데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도 정밀한 기계의 부품을 짚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됨은 물론 모든 면에서 세밀하게 시공에 임하는 자세라야 될 것이다.

금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서는 성전건축의 완상단계에 한걸음 옮기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길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뻥차오르는 것만 같다. (*)



잠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9-14)

1981년도 주요일지

1 월

- 1 일 / 신년예배 (1, 2, 3부)
/ 구역을 7 개지구 299구역으로
/ 제직회내 서무부와 영선부를 폐지하고 당
회산하 사무국으로 통합
/ 예산관리 일원화
/ 주일저녁 예배시간을 5 시로 변경
/ 박동실 · 허충욱 강도사 초빙
- 4 일 / 1982년도 공동의회
- 5 ~ 10 일 / 1982년도 단기수련회
- 6 일 / 오진국 · 노광현 장로와 최 환 집사가 건
축관계 일로 해외출국

2 월

- 8 일 / 성가대 연합음악예배
- 9 ~ 14 일 / 동기전도대 파송
- 12, 13 일 / 서울시내 영아부 교사수련회
- 28 일 / 산업전도회내 의료인 첫 모임

3 월

- 2 일 / 이명달 공로전도사 소천
/ 전교인 성경공부 개강
- 2 ~ 12 일 / 교사단기수련회 (강사 : 이종윤 목사)
- 17 일 / 춘계심방식

4 월

- 1 일 / 오치용 강도사 초빙
- 9 ~ 12 일 / 춘기 성례식

5 월

- 1 ~ 31 일 / 총동원 전도
- 1 일 / 장년새신자부를 장년새신자 1부(학습), 장
년새신자 2부(세례)로 각각 독립 승격
/ 성경학원을 해체하고 성경연구원 발족
- 9 일 / 경로회
- 22 일 / 산업전도회 섬유분과 모임

6 월

- 1 일 / 청년부 집회 2 부제 실시
- 3 ~ 6 일 / 전국 유명교회 탐방(장로)
- 22 일 / 당회장 김창인 목사 해외선교여행차 출국
- 27 일 / 황기성 장로 미국 이민
- 29 ~
7월 3일 / 제 7 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

7 월

- 3 일 / 오승를 장로 미국 이민
- 6 ~ 10 일 / 제 10 회 농어촌교회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
- 13 일 / 최석주 장로 · 김영휘 강도사 해외선교 여
행차 출국
- 27 ~ 31 일 / 제 10 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제 1 차)
- 27 일 ~
8월 8일 / 북한선교회 - 제 1 차 특공대훈련

8 월

- 1 일 / 영아부 4 부제 집회
- 17 ~ 29 일 / 제 10 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제 2 차)
- 31 일 / 윤형철목사 미국으로 유학
/ 김순애 전도사 · 원동석 전도사 · 인정옥 전
도사 · 황명길 전도사 사임
/ 헌정남 전도사를 심방위원회 5 지구 담당
전도사로 이진희전도사(어린이새신자부 부
지도), 유순화 전도사(산업전도부 부지도)
임명

9 월

- 6 일 / 교회설립 28주년 기념일 (20년 근속자 표
창 : 최석주, 황창룡장로, 계수익, 김정옥,
이옥녀, 이덕순, 정봉조, 함송현, 윤순탄
권사)
- 8 일 / 김석원 목사 사임(미국 유학차)
- 9 일 / 당회장 김창인 목사 귀국

10월

- 1 일 / 윤태곤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임명
- 8 ~ 11 일 / 추계성례식
- 13 일 / 김영휘 · 조준상 · 최봉호 · 박동실 · 허충욱 ·
오치용, 목사 초빙

11월

- 1 일 / 김성주(청년부 부지도) · 정관호(산업전도
교육부 부지도) 전도사 임명
/ 미국 시카고의 미현교회와 자매결연
- 12 일 / 새성전 건축 상량예배
- 16 ~ 21 일 / 한영철목사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서 부
흥회 인도

12월

- 7 ~ 11 일 / 심령부흥회(강사 : 김홍도 목사)
- 18 일 / 김영휘 목사 미국으로 유학



□ 사진설명 □

● 1981년 11월 12일 오후 3시 전 건축현장에서는 상량예배를 했다. 3000여명의 성도들이여 상량예배를 드렸는데 절골 마무리 지음으로 골조공사를 되고 전체공정의 약 30%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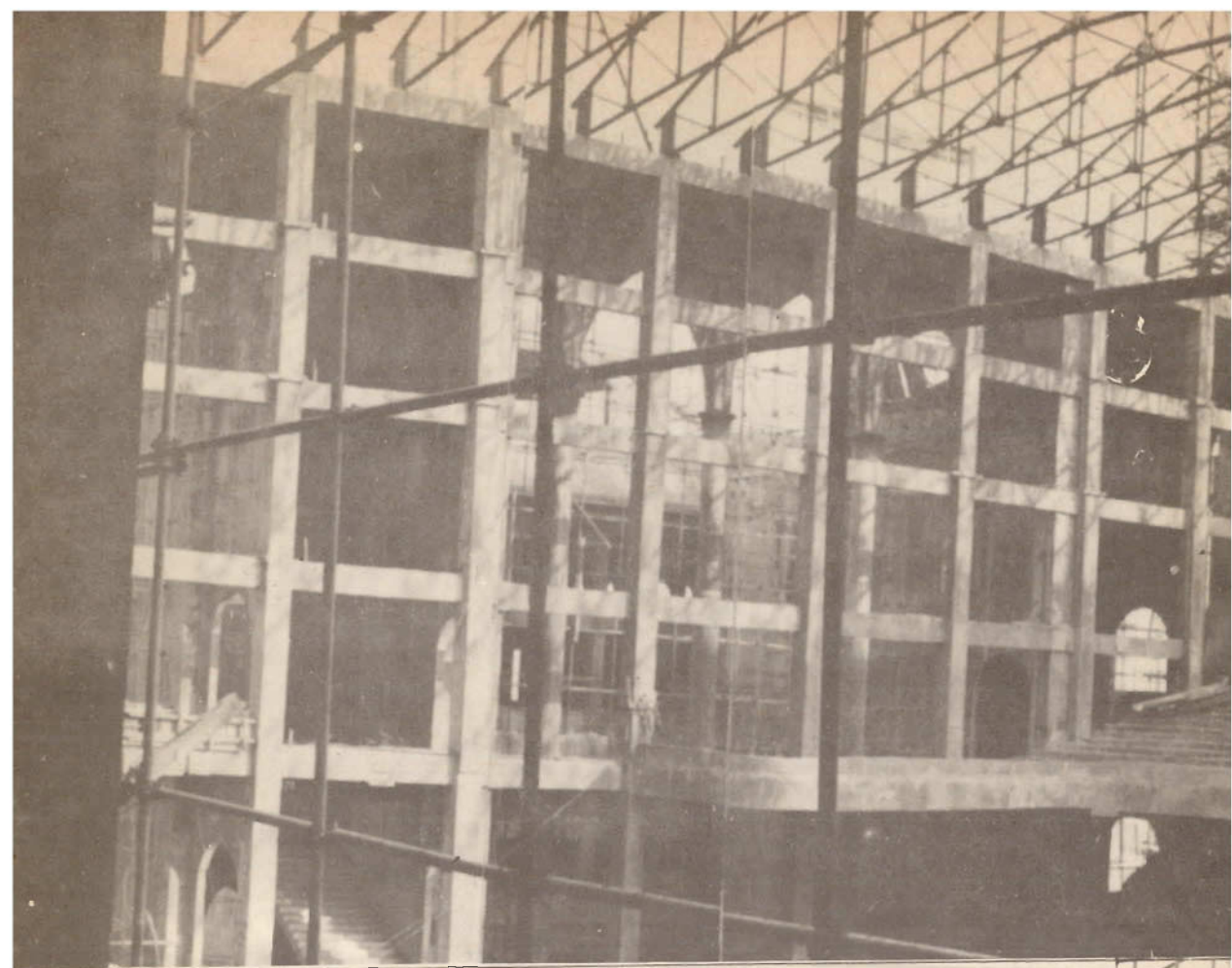
* 특집화보 *

새성전 상량예배

1981년 11월 12일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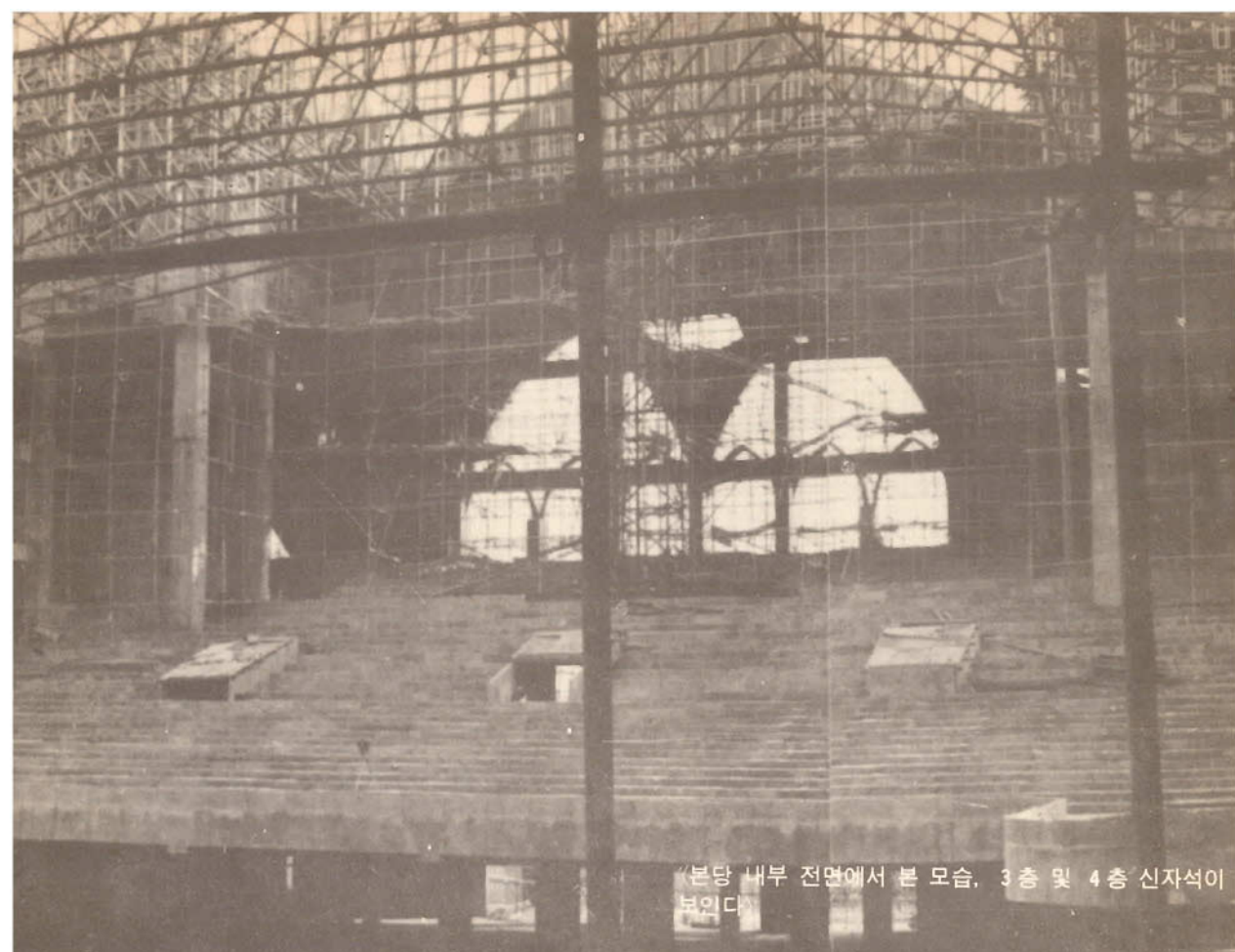
노현동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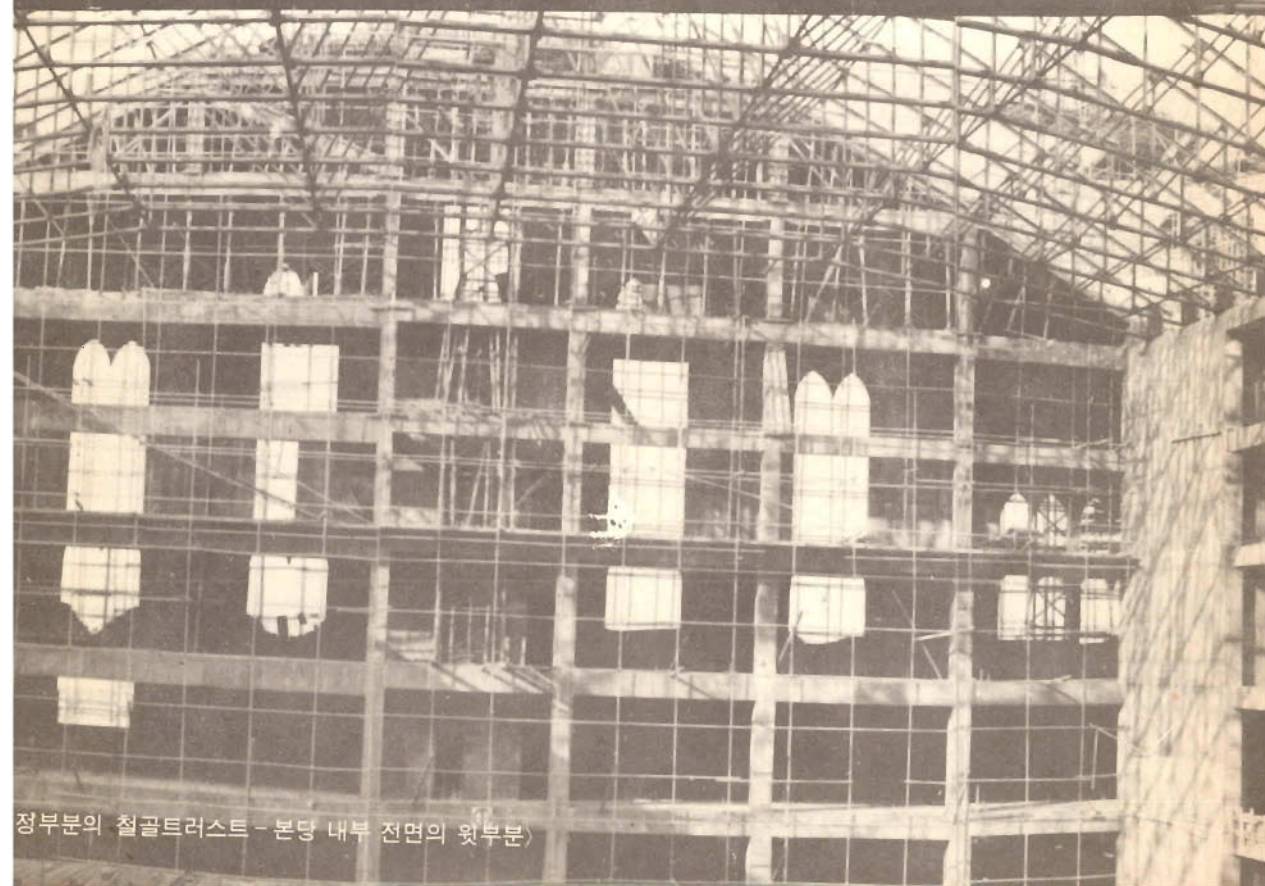


〈골조공사가 거의 마쳐진 본당의 모습, 진입로 입구에
서 찍은 모습이다〉





본당 내부 전면에서 본 모습, 3층 및 4층 신자석이 보인다



정부분의 철골트러스트 - 본당 내부 전면의 윗부분

새 해의 문턱에서

이 형 수

어김없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를 다시 한 해의 마지막까지 몰고 왔다. 매년 맞게 되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와 연시(年始)이지만 우리는 이제 절이 되면 항상 숙연해지고 새로와지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무엇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감사가 뒤범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퇴영(退營)과 성숙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인간들은 살아 오고 있는가 싶다. 특히나 크리스찬의 삶은 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살아 온 삶 자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여러가지의 생각으로 교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후회와 초조의 마음이 생기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는 해를 「희망의 새해」라고 부르는데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시점에서조차 지나온 일년을 돌아 볼 줄 모르는 바쁜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일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으려는 마음들이 그저 외적인 일을 정리하느라고 바쁘게 뛰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 비록 외적인 일은 한, 두 가지 정리 못한다 해도 - 내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앞에 조용히 내어 놓고 살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을 정리하고 또한 새해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 본다면 꼭 귀한 일일 것이다.

하루가 안되면 다만 만나절이라도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반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1981년이 가고 1982년이 오고 있다.

한밤에 양을 치는 자

〈새 142장〉

한 밤에 양을 치는 자
그 양을 지킬 때
주 모신 천사 임하고
큰 영광 비치네
큰 영광 비치네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무대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으며 누워있었다. 그날밤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은 유난히도 반짝반짝 빛났다.

바로 그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어왔다. 누워 있던 목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찬란한 빛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오늘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음성이었다. (눅 2: 8-12 참조)

이것이 지금부터 2000여년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소식을 알려준 장면이다.

이같은 성경말씀의 내용을 데이드 (Nahum Tate, 1652-1715)가 의역한 찬송이다. 이때만 해도 시편만을 불러야 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성경의 의역이나 율율시는 인간이 만든 찬송시를 부르는 시대로 가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보겠다.

여기에 1728년 헨델 (George Frederick Handel)의 오페라 시로 (Siroe) 제 2막 소프라노 아리아에서 곡을 따 붙인 것이다.

저 위에 계신 천부께
큰 영광 돌리세
땅 위에 사는 백성은
늘 평안하리라
늘 평안하리라 (6절)

금년에도 즐거운 성탄은 우리와 이 민족에게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 얼마나 아끼 예수가 이 세상에 찾아 오셨음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금년 성탄에도 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 구주 탄생을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특강 열어

본 도서실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이진숙 교수를 모시고 「한국 도서유통과 도서관이용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도서특강을 가졌다.

이진숙 교수는 강의에서 “현대는 정보시대로 학생은 물론 일상 생활인들까지도 어느 한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다. 더욱 도서관은 현대인을 위한 지식의 보고로 등장하게 되고 그 이용법도 날로 복잡하게 변모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단지 독서와 시험공부 및 레포트 작성의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모든 정보의 제공처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및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모든 시설이 컴퓨터화되어 사소한 자료에서 방대한 자료까지 학생과 교수, 그리고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도서관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 역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보고가 도서관 서고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본 도서실은 독서를 위한, 혹은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되고 이용되기 보다는 신앙생활과 교양생활의 전반적인 카운셀러가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도서대출 반납요망

본 도서실에 소장된 도서를 대출하여 아직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금년 말까지 모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편집실.....

◇ 책소개 ◇

R. A. 토레이 지음

기도와 영력

생명의 말씀사 · 243P · 2,400원

오늘날 교회와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부흥이다. 인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흥이나 혹은 인간 자체의 회기적인 혁명중 어느 하나를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조작된 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사회와 문명은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얼마나 배교와 불신의 시대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깊고 철저하여 성령의 역사로 수행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부흥이다. 이 부흥은 인간을 매개체로 일어나고 수행되며 오직 한가지 방법, 바로 기도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도와 영력」은 특히 기도의 능력에 관한 비밀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 기도가 없는 집회와 봉사와 교육과 설교와 찬양과 부흥을 종종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 책은 능력을 상실해버린 목회자나 사역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놀라운 고전이다.

이 형 수 (월간충현편집부장)

칼빈주의 구원관 (1)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1. 인간 구원

인간의 구원은 어떤 순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여기는 ① 정하시고 ② 부르시고, ③ 의롭다 하시고 ④ 영화롭게 하신다고 구원의 순서를 말했다.

이것이 또한 신학적으로 나눈 순서라 하겠다. 칼빈주의 신학자 헬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그리스도의 삼대직분(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결부시켜 말하기를 부르시는 것은 선지자직으로, 의롭다하심은 제사장직의 수고로, 영화롭게 하심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직으로 오실 때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에 적용된 것도 있으나 앞으로 완성되어야 할 점도 있다. 즉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신 일은 이미 과거에 되어졌으나 성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라 했다.

이같은 구원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

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정하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생시키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같은 구원 과정을 “구원의 길”로 쉽게 설명해 주셨다. (마 7:13-14) 그것은 두 길, 즉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다. “멸망의 길”(벧후 2:15)과 “생명의 길”, 혹은 “구원의 길”(고전 4:17; 벧후 2:21; 행 18:25-26)이다.

2. 예정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예정한대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다. 만약 하나님의 예정을 밀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정을 안 믿는 사람들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서도 성전 생활에 더욱 힘썼다. 다윗왕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도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삼하 7:27)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배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을 알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의 계약론자(Covenanters)들이 도덕생활의 최고 수준을 보여 주었는데 그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도덕적으로 모범할만한 사람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반덴 브린크(R. C. Bakhuizen Van den Brink)는 말하기를 “칼빈주의는 16세기에 있어서 가장 발달한 형태이었다.”고 했으며, 반크로프트(Bancroft)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본체론과 윤리와 사회적 행복과 인간의 자유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같이 칼빈주의자들이 도덕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러 오셨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율법을 지켜 그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므로 도덕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생활을 하게 된다.

3. 중생 (Regeneration)

1)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중생이란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만 한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중생을 영어로 리제네레이션 (Re-generation) 이라고 한다. 이렇게 복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번 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머니 태에서 육으로 나야 하고 다음 또 한번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요 3 : 1~9 참고)

그러면 중생이란 무엇일까?

① 중생은 동적 (動的) 이다.

불교에서는 견성 (見性) 이란 도리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욕망이라고 보고 이 욕망을 인간적인 수양으로 없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무 (無) 로 돌리면 나중에는 자아의식 (Self-Consciousness) 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그 지경에 들어가는 찰나 (moment) 를 견성이라고 한다. 불교의 견성이 있던 자아의식까지 없이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중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던 영적 자아가 새로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견성을 정적 (靜的) 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중생은 동적 (動的) 이다.

② 중생은 영혼의 부활이다.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고후 5 : 17)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첫째 창조 (first creation) 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영혼을 중생시키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2 창조 (second creation) 라 한다. 첫째 창조는 옛세 동안에 말씀으로

하셨으나 제2 창조는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성취하신다. 인간의 창조 순서를 보면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영혼은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러나 타락은 그렇지 않다. 영이 먼저 타락하여 영의 사람이 죽고 나중에 육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먼저 영을 살리고 나중에 육신을 살린다. 영은 중생할 때 부활하고 육신은 예수님 재림때 부활한다. (요 5 : 25, 28 ; 11 : 25 참고)

③ 중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같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 중생이다. (엡 4 : 24)

2) 중생의 필요성

그렇다면 중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였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Except a man beborn again) 중생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도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번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 13 : 47~50 ; 마 22 : 1~14)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 (계 12 : 1) 에 새 사람이 들어가서 (고전 6 : 9~10)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계 14 : 3) 그러므로 중생한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3) 중생의 방법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생은 구원의 시작만 아니라 그 과정과 완성의 요소와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중생 안에는 ‘장성의 여지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이 중생은 구원의 시작만이 아니라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페라기 안주의자들은 말씀 선포없이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나 칼빈주의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본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선포가 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겔 37 장 참조) 신약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먼저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행 1 : 15~22)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고 (행 2 : 36)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다. (행 10 : 44) 그러므로 말씀 선포가 없이는 중생의 역사가 없다.

4) 중생의 결과

그러면 중생의 때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요 3 : 11) 다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인격 전체가 새로워진다.

인격 전체는 지 (知), 정 (情), 의 (意) 를 말한다. 칼빈주의 신학자 반틸 (Cornelius Vantil) 은 세가지 인간상을 말했다. 첫째는 타락하기 전의 인간 (아담), 둘째는 타락한 인간 (모든 인류), 셋째는 중생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다. 타락전의 인간은 완전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부패했다. 그러나 중생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 정, 의가 새로워진다. (골 3 : 10 ; 고전 2 : 14~15 ; 고후 4 : 6 ; 엡 1 : 18 ; 갈 5 : 24)

② 의지가 새로워진다.

인간의 의지가 인격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중생하기 전에는 죄악의 길을 따라 갔으나 중생한 후에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선다. (히13:21; 롬9:16; 빌2:3; 살후3:5; 롬8:7)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5:19-23)

③ 믿음(信仰)이 생긴다.

신앙은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관념적(觀念的) 신앙과 또 다른 하나는 중생한 신앙이다. 관념적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신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중생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생, 믿음, 회개의 선 후관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동시에 되어지는 일로 생각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중생이 먼저이다.

인간의 힘으로 믿어 중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결과 믿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중생시킴으로 회개가 따라온 것이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중생한 후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중생한 후에도 계속 범죄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중생한 후에도 계속 범죄하게 된다. 그 이유는 중생이란 새 생명이 출생한 것이지만 다 장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요13:10)고 했다. 이 말은 이미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에 묻은 죄는 씻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도 중생한 후에 범하는 죄문제 때문에 고민했다. (롬7:19)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자다. 여기서 치료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때까지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다. 예수님 재림때까지는 불완전한 죄인이란 말이다. 그래서 루터(Luther)는 중생한 성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의사에게서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소생할 것을 진단받은 환자"라고 했다.

그러나 중생전과 중생후의 범치는 차이가 있다. ① 중생전에는 계속적인 범죄 생활을 했으나 중생후에는 일시적이다. ② 중생전에는 죄를 사랑하여 고의적(故意的)이었으나 중생후에는 무의식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중생후에도 범죄가 있으나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부패성(죄성)이지 하나님의 씨, 즉 성령이 주신 생명 자체가 범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심이어!

놀랍고도 오묘하나 그토록 참된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느니
그대와 나 모두를-
하나님 은혜는 한없이 풍성하시느니
젊은이와 늙은이
외로운 이와 겹잡은 이
성급한 이와 담대한 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 이 없으니
그대 거기서 제외되었다 여기지마오.
무엇하는 그 누구이거나 그대 이름 거기 있다오-
또한 그대 과거 무엇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대 고뇌 무엇이거나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오-
우리 모습 아무리 누주해도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리!

-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 -



권찰들의 전도

권찰들이 가가호호 심방하는 일의 목적이 일면 전도이다. 이번 호에서는 권찰들의 전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1. 직접전도

권찰들이 심방을 갔을 때 그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중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권찰들은 그 한 사람에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과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우며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려주어야 할까.

- 1) 인생이 죄인인 사실을 알려준다.
- 2) 죄인의 잘못을 알려준다.
- 3) 죄인이 구원을 얻는 복음 진리를 가르쳐준다.
- 4)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신도 그러함을 물론 깨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 5)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구원얻는 길을 제시하여 주되 결코 어려운 교리적인 교육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런 가르치는 일에는 인내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수고해야 한다. 권찰들은 교회에 있어 그 어느 조직체보다 전도운동의 핵심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체의 일원인 줄 알고 활발하게 총동원되어 전도해야 한다.

2. 간접전도

권찰들의 활동에 중요한 또 한면은 간접전도이다. 권찰들의 구역 활동이 그 기능을 발휘하여 봉사할 때에 그 기능은 놀라운 실효를 거두게 된다.

성도와와의 친교나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랑의 교류는 아니 믿는 가족 식구들에게 감화를 주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다.

심방하는 가정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 혹은 기쁜 일을 만났든지 노약자로 인한 어려움이 있거나 취업으로 애타할 때 권찰들의 따뜻한 사랑은 곧 성도의 교제이다.

어려운 가정에 작은 물질적 도움이나 위로와 격려는 간접적인 전도 활동이 된다. 이 간접적인 전도 활동은 그 실효가 직접적인 활동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권찰들은 심방을 할 때에 이 봉사활동, 즉 간접적인 전도활동을 것을 찾아 힘써 봉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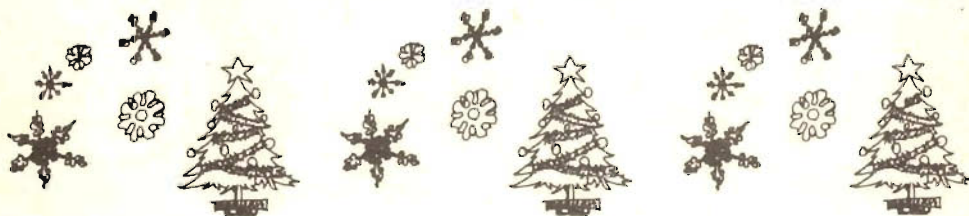
더욱 성도 가정에 임종을 맞이했을 때 권찰들의 봉사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교역자들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을 권찰들이 찾아서 봉사하면 더욱 많은 믿지 않는 식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말씀(명령)으로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제 1일에 분리 작업으로 빛을 만드시고 제 4일에 구성 작업으로 천체(天體)를 만드셨다. 첫째날의 낮과 밤은 우주 공간 전체적인 것이고 둘째날의 낮과 밤은 태양계의 공전과 같은 역학적 운동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 (최초의 큰 광명과는 많이 변동한 현재의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광명으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현재의 달)으로 밤을 주관케 하셨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히브리인 시인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찬양하였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찌어다'라고 시를 읊었다.

공기가 맑고 건조한 지대에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은 옛날부터 성좌(星座, 별자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삼성(오리온), 묘성(브리아메스), 북두(큰곰) 및 12궁(黃道帶)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숨씨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통솔 밑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 간에는 태양, 달 기타 별들 숭배가 행해지고 그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향불을 피우고 우상화하여 별을 두고 점을 치는 등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별'로 되고 아침 새벽 별을 제림의 그리스도에 비기었다. 또 별은 교역자들과 방백(方伯)들을 상징하였고 거짓 스승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

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새벽 별은 충성된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간은 1957년 우주시대가 시작한 이래 미지의 개척지로 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간의 우주선은 달 여행을 마치고 화성, 금성을 향하여 불꽃이 꼬리를 내뿜었으며, 탐색선 보이저가 지난 4년간 20억km



별

의 우주 여행 끝에 토성의 새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우주 탐색의 새 장(章)을 열어 놓았으며 우주 탐색선은 인간이 일찌기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포착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였다. 그것은 진주가 구르는 듯한 높은 소리와 은은한 장소리와도 같았다고 하면서 과학자는 '기적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탐색선은 1986년에 천왕성 랑데부, 1989년에는 해왕성에까지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의 위성들은 지구에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우주와 지구 자체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있다.

인간이 탐험하고자 하는 태양계는 우주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지구의 개념에서 말한다면 굉장히 큰 면적이다. 그 주성인 우리들의 태양은 그 주위를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는 아홉개의 혹

성으로 된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한 별이다. 즉 태양 자신도 작은 별에 불과하다. 태양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다. 우리들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아홉개의 혹성 가운데 지구는 크기에서 다섯번째의 한 별에 불과하다. 모든 다른 별들도 인간의 제일 좋은 망원경에도 빛의 점으로 나타난



조 현 명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장)

다.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반쪽이는 별들은 약 100억 광년(1광년은 약 6조마일)이나 먼 곳에 있으며 별의 숫자가 10억조가 되니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며 그의 지으신 우주가 무한대임을 가히 짐작할 것만 같다.

천문학이 미발달한 시대에는 태양·별과 같이 천구(天球) 상에서 보이는 물체가 천체였으나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가 넓어졌다. 지구도 1개의 혹성으로서 볼 때는 천체의 개념 속에 들어가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천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대상물이라도 물체를 보는 방법에 따라 천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의 Star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항성(恒星)만 가리키는 때가 많으나 항성·혹성(惑星)·혜성(慧星)·위성(衛星) 따위의 천체; 별표·별 모양의 훈장; 스타·인기 배우·인기있는 사람; 운수(運數·星運)

() 등의 뜻으로 쓰인다. 반세기 전에 스타라고 하면 의례히 영화 인기 배우를 가리켜 일컬었으나 지금은 축구계의 스타, 야구계의 슈퍼스타, 복싱계의 셋번, 최우수 가수의 빅 스타 기타, 여러가지 부문에서 스타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수는 단명(短命)하다. 스타로서 등장하면 그야말로 오래 버티어 가지 못하고 별처럼 반짝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스타들이 장수(長壽)를 누리기 위해선 다른 여건도 갖춰야 되겠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뚜렷한 한 개성이 있어야 함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별같이 무수히 많은 신인들에게 기성의 가수가 반짝하다 말고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장성(將星)이 되기 힘들음 '하늘의 별 따기'로 표현한다. 학보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집의 딸이 딸이 생각난다. 집안에 별을 단 어른들이 계시서 별이 얼마나 귀한 줄을 느끼지 못하다가 입대하여 보니 작대기 하나가 그렇게도 귀한지, 별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왕은 별과 같다. 떴다가는 진다. 온 세상의 숭배를 받지만 영일(寧日, repose)은 없다'란 말도 있다.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새벽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증거는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유

일한 복음이다. 흔히들 인류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고려의 유명한 공신 인헌공 강감찬 장군(仁憲公 姜邯贊 將軍)이 큰 별이 떨어지던 날 밤에 금주(衿州, 지금의 봉천동)에 태어났다는 전설에 따라 낙성대(落星臺)라 이름하여 출생지를 표시하고 거란(契丹)의 침략적 야망을 근절시킨 장군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동방에서 연구하던 박사들은 천체에 나타난 한 이상한 별을 보았고 그 별 때문에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별은 천체 중에서 돌아야 할 자기의 길, 별의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사실은 의미 깊다 하겠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왕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별은 자체를 감추고 있었으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별을 볼 수가 없었다. 박사들이 왕과 의논한 뒤에 문밖으로 나올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별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던 별이다. 이 별은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고 예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말기유를 확실히 비취주고 있었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천체의 큰 별로 나타날

수가 있고 필요한 자에게는 보이시고 필요없는 자에게는 감추는 그런 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라' (제22:16)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이 별은 바로 이 땅위의 큰 빛, 큰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분의 별은 움직이는 별이시다. 그분의 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이며 더러운 자들에게는 언제나 숨기시고 우리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비취가시며 인도하시는 별이시다. 빛나는 이 별은 인류의 종말시기에 또 한번 나타날 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이렇게 큰 별로 이 땅에 오셨다. 큰 빛으로 일생을 사셨으며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큰 별이시다.

불안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나태와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의와 분쟁으로 가득찬 소망 잃은 땅위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와 신뢰와 정의와 서로 돕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낙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평화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는 충성된 성도들인 '새벽 별'이 되어야 하겠다.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요동한지라. <마 2:1-3>



해외선교지 · 선교사소식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1. 성례식

10월 4일 산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성례식을 거행(학습서약 6명, 입교문답 1명, 유세자 7명)

2. 합동성찬식

10월 4일 저녁 7시 임마누엘교회당에서 거행(인도네시아어 및 영어, 화란어, 한국어로) 선교사님이 집례.

3. 선교비입금

4/4분기 선교비가 10월 30일자로 입금됨. 감사합니다.

4. 건축비송금

10월 7일 중부 자바 위노끼르 또 교회 건축비중 철근구입비로 240\$ 송금.

5. 오지개척현황

장년 21명 결신.

6. 한인교회부흥회

11월 16일~20일까지 강사 한영철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 개최중입니다.

* 기도제목 *

1. 부흥집회의 큰 성과를 위해
2. 선교관 신축기금을 위해

홍 콩-홍 종 만 선교사

홍종만선교사님은 건강이 매우 호전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오전 9시에 홍콩교회 및 선교지 방문차 출발하셨습니다.

* 기도제목 *

1. 홍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2. 홍콩한인교회 및 중공선교(교포, 마카오교회)를 위하여

애 굽-이 준 교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선교사님 및 가족이 좋지않은 기후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2. 아프리카 복음선교의 확고한 기반이 서도록

3. 한인교회 부흥 및 현장예배를 위해

서 독-육 호 기 선교사

1. 빌드후레겐 순회예배

9월 26일 미국인 특별훈련장인 이곳 깊은 산중에서 외부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없는 교포 13명에게 예배를 통하여 위로

2. 하나우 한인교회 성례식

9월 27일 거행함(학습자 2명, 세례자 5명, 유아세례 5명).

3. 안재은 선교사(혜성교회 후원)

10월 9일 도착 서독선교(민혜중심)를 위해 피차 협의중이며 현재 선교사님택에서 기거중임.

4. 공산권에 성경전달

10월 19일 우리말 성경 20권, 소련어 성경 20권을 요구하는 곳에 무사히 전달, 주의 은혜로 몇차례 위기를 극복.

5. 비스바덴 한인교회 버스구입

10월 15일에 15인승으로 구입.

6. 선교사님 부친 장례식

지난 11월 13일 오전 7시 30분 갈현동 자택에서 거행됨.

* 기도제목 *

1. 영력과 건강을 위하여
2. 공산권선교를 위해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선원선교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도록
2.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불드시는 오른손이 함께하시기를.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부흥을 위해
2. 아르헨티나의 경제안정을 위해
3.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해외선교지 · 선교사소식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1. 10월 6일 제2회 북한선교회 조찬기도회 인도
2. 10월 8일 김승용목사 환송, 김목사님은 호주 정남집으로 이주하심.
3. 10월 12일 목사관 신축착공예배
4. 10월 12일 시내 교회대향 학생배구대회 우승.
5. 10월 13일 춘기대심방 시작하여 진행중.
6. 10월 16일 한국대사 초청간담회 참석

* 기도제목 *

1. 현지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2.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1. 10월 4일 칠레 제2장로교회와 연합성찬예식 설교 및 인도(한국인 세례 1명, 유세 1명, 학습 1명)
2. 10월 12일 칠레성서교회 강연회 참석 및 원주민을 위한 성경번역계획 강좌를 들음.
3. 10월 23일 칠레 제2장로교 77주년 기념예배에 참석 축도.
4. 10월 29일 칠레 제1고아원방문 설교와 찬송공부(가방 90개, 기타 간식준비).

* 기도제목 *

1. 선교사님 및 가족과 한인연합교회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2. 새성전건축을 위하여
3. 교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인 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1. 티벳인 기독교인 동지대회(Tibetan Christian Fellowship's Convention) 참석

10월 7일~11일까지 네팔지역의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개최된 동 회회에 참석함. 큰 유익이 있었음.

2. 약혼식

10월 17일 다질링(DARJEELING)에서 약혼식을 가짐. 결혼식은 몇달 지나서 가질 예정임. 부인이 될 분은 네팔인이며 증조부는 성경을 네팔어로 번역한 분임.

* 기도제목 *

1. 선교사님의 활동에 계속 큰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2. 선교사님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위해서

일 본-유 병 세 선교사

1. 광미교회의 부흥

선교사님 내외분의 헌신기도를 들어주셔서 국민학생이 새로 3명, 고교생(남학생 7명, 여학생 2명) 9명이 새로이 출석하고 있음.

2. 광미교회예배

10월 4일 주일예배시 마태 17:14-21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으로 설교, 계속 예배인도하며 은혜를 나눔.

3. 이권사님 부인성경반 인도

10월 7일 광미교회 부인성경반 인도(창세기), 계속 인도에 힘쓰고 있음.

4. 외래환자전도

수시로 신임지 에리모진료소에서 외래환자에게 전도하고 있음(외래 100여명, 입원환자 20여명).

* 기도제목 *

1. 매일 분주하여 혹시나 치료에 실수가 없도록
2.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위해.

서 독-박 용 삼 선교사

1. 논문 계속 정리

작성을 마치고 타이프중임. 과정마다 힘겨운 일이 많으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않고 있음.

2. 계속 전도일에 힘쓰고 있음.

* 기도제목 *

1. 12월호 논문제출을 위하여
2. 선교자료의 수립을 위하여

본부소식-해외복음선교회

1. 해외복음선교회는 11월 29일(주일) 4부예배후 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본 선교회의 선교사역수행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 및 해외교우들의 기도를 요망합니다.

2. 한영철 목사님은 11월 12일 오전 9시에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집회인도차 출발하심.

11월 중 새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월 계 구역 김선향
용 두 구역 강성남
광희 1 구역 오정훈
미아 8 구역 조명순
장위 1 구역 양영란
성 북 구역 이성인
청량리구역 김성태

● 2 지구

도 선 구역 최기선
이문 2 구역 박해숙
암 사 구역 김효식

강 동 구역 김중순
행당 1 구역 서영숙
마 장 구역 이광옥
천호 1 구역 김재수
행당 1 구역 국금옥
홍 익 구역 송낙현
둔촌 1 구역 김재혁

● 3 지구

신당 4 구역 임정임
잠실 3 구역 광철수

● 4 지구

묵정 3 구역 이영희
금호 3 구역 장점미
보광 1 구역 김경자
선정 1 구역 이생기
보광 1 구역 심인호
목수 2 구역 이미균
금호 3 구역 변병숙

● 5 지구

신림 3 구역 오신숙
주공 3 구역 노정순
방배 3 구역 홍순남

봉천 3 구역 이오성
방배 2 구역 안은전
신 길 구역 정순희
봉천 1 구역 송권섭
안 양 구역 한석동
신림 2 구역 박성훈

● 6 지구

진 양 구역 김순철
화 원 구역 김용만
동 교 구역 강해규
대 흥 구역 김태훈

화곡 3 구역 김순한
북아현구역 채순미
선 정 구역 안경자
구 로 구역 장일숙
청 파 구역 최윤순
염 리 구역 박언규
오 류 구역 김월순
마 포 구역 김매자
인현 3 구역 임광덕
염 리 구역 이승득
화 원 구역 김명수

● 7 지구

역촌 1 구역 김현경
오 장 구역 이주현
홍 제 구역 조동기
개 봉 구역 김익걸
오 장 구역 이선주
을 지 3 구역 이몽실
가 회 구역 한지훈
종 로 구역 이민자
연 지 구역 재운순
초동 2 구역 왕춘선
용암 1 구역 이동준
역촌 1 구역 김인중
명륜 2 구역 허상인

* 축하합니다. (11월 중 결혼)

- 이영철군(이진호집사 오덕희권사 아들)과 이옥숙양 7 일
- 임현호군(제이성가대원) 14 일
- 이찬휘군과 김민환양(김상수씨 이현순권사 딸) 14 일
- 신관홍군(제삼성가대원) 14 일
- 이미란양(이완철장로 이보영권사 딸) 16 일
- 박성민군(박일영집사 김수일권사 아들) 17 일
- 이진수군(김태현집사 이금옥권찬 아들) 19 일
- 김영주양(김동원집사 김경희권사 딸) 21 일
- 박홍린양(김희생권사 딸) 25 일
- 양준홍군(조경옥집사 아들)과 이순희양(서교구역) 25 일
- 김창현군(최정희씨 아들) 26 일

- 안수경양(김석윤집사 딸) 27 일
- 이승구군(청년부회원) 27 일
- 김주인군(박신조집사 아들) 28 일
- 윤두한군과 최혜숙양(고동부교사) 30 일

* 위로드립니다. (11월 중 별세)

- 어우순성도(조준상목사 모친) 10월 29 일
- 김한진집사(함송현권사 부군) 10월 29 일
- 임진택씨(묵정 1 구역 윤애순씨 아들) 1 일
- 박학호씨(이문구역 박태연양 부친) 4 일
- 서학호씨(아금남집사 부군) 4 일
- 김이순권사(강지순장로 사모) 10 일
- 육완배씨(서독주재 육호기선교사 부친) 11 일
- 이춘식권사(강원도 원주) 19 일
- 유월매집사(박석순권사 모친) 2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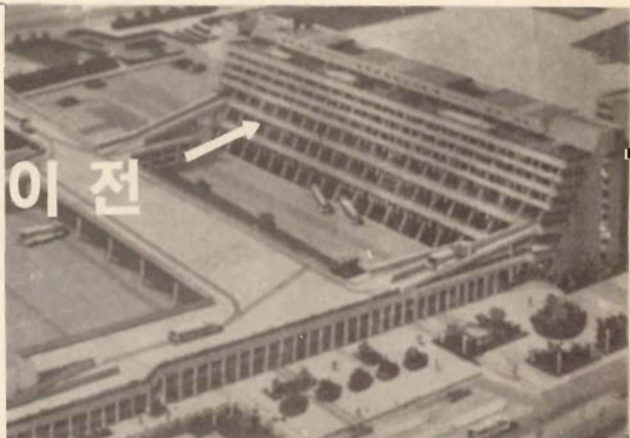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이 전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총회 교육전문위원 구성

총회교육부(부장 배준목사)는 총회 교육정책 결정 및 총회교육을 위한 전문위원 9인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총회가 요구하는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동시에 집필자로서 힘쓰게 된다.

9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희보(총신교수), △ 정성구(총신대학 학장), △ 김득룡(총신교수), △ 조해수(부산전포교회), △ 임승원(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원장), △ 신세원(대구 문화교회), △ 김종석(군산 개복동교회), △ 엄도성(창동 중부교회), △ 정정숙(총신대 교수)

아프리카에 류종재선교사 파송

총회 선교부(부장 최동진목사)는 아프리카 주재 선교사로 류종재를 파송키로 하고 지난 11월 11일 서원교회당에서 파송예배를 드렸다.

서울 서원교회(김경원목사 시무)의 재정후원으로 파송되는 류종재선교사는 총신대학 및 신학연구원을 졸업, 서원교회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82년 1월 경 임지로 떠난다.

49개국에 성경보내 성서공회 정기총회

대한 성서공회는 11월 23일 제56회 정기총회를 열어 1년간의 성경 반포 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새로운 회기에 49개국에 성경을 수출키로 했다.

총회에서 밝혀진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4천16만여부에 달하는 각종 성경을 제작 반포했음을 보고했고, 신년도에는 31개 언어로 49개국에 성경을 보내게 됨을 사업계획에서 채택했다.

한편 동 회는 미자립 작국 성서공회에 6만부를 지원키로 했다.

북한선교회 파라과이 지회

지회장에 김재장목사

북한선교회(이사장 김장인목사) 파라과이 지회가 창립되어 새 지회장에 김재장 목사가 선임되었다.

교계지도자 세미나

기독교계 지도자 세미나가 11월 18~20일 설악파크 호텔에서 개최되어 당면한 교계현실을 자가 비판하며 새로운 기독교상 정립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동 세미나는, 각교단의 총회장 및 총무등 80명이 참석했는데, 교회와 국가와의 유기적 관계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연을 맡은 홍현설박사는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 비결은 성경 중심적이고 전도에 열심이며,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데 희생적이었음」을 지적하고 「한국 교인들의 신앙은 보수적 현실도피적, 타계주의적, 독선주의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며,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교육·문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 똑같은 관심을 갖는 것을 잊어왔다.」고 강조했다.

경목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교경중앙협(教警中央協) 총회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는 11월 23일~25일 정기총회 및 경목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찰복음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4개 지역대표와 본부임원 56인이 참석한 동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의하면 경찰관 선교를 위해 1487회의 교회예배를 비롯하여 전경대 교양예배 1009회, 석찬기도회 309회, 경찰가족 심방 340회, 파출소 경찰관 위문 696회 등의 사업활동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에 이의호목사를 선임하고, 계속 사업으로 경찰관 교양사업, 유치안교화, 청소년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방신학 비판 세미나

12월 6일 승동교회당에서

서울지구장로회(회장 김인득장로)는 12월 6일 오후 7시 승동교회당에서 해방신학 비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라보도박사(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 교장)와 신성종박사(총신교수·충현교회 협동목사)가 맡는다.

1982년도

각 부서 임직원임명

당회는 1982년도 각 부서에서 수고할 임직원을 각
각 임명했다. 1982년도에는 시무권사 42명, 남서리집
사 51명, 여서리집사 94명의 제직들을 신규 임명했
다. 따라서 우리교회 신년도 제직은 목사 15명, 시무
장로 45명, 협동장로 3명, 강도사 3명, 전도사 11
명, 시무권사 326명, 남서리집사 351명, 여서리집사

550명으로 총 1,404명이다.

또한 주교교사는 16개 주일학교에 540명을 임명했
다. 교회는 각 부서의 임직원의 임명을 11월 29일에
는 권사·남여서리집사를, 12월 6일에는 구역권찰
요원, 12월 13일에는 주교교사, 12월 20일에는 성가
대원 등을 4부 예배시에 임명했다.

1. 당회

서기 / 윤종순 부서기 / 이태규

2. 당회산하기구

부 서	부서장	위	원
예배위원회	홍종만	김하진	장정일 김원남 김기정
		윤종순	이동규 임광식
		장정일	남성호 김영희 조준상 박동실
		오치용	이양우 유국남 최석주
전도위원회	장정일	한경일	마성락 김영삼 홍중섭
		손동운	박치민 최성림 강순용
		이창업	신현상 김방진 김경철
		홍중만	김희보 윤영탁 이종운 신성중
교육위원회	홍중만	김희보	윤영탁 이종운 신성중
		(부위원장: 이승근)	김영희 김영개 김은호
		최봉호	오태희 김종석 김차생 김의철
		윤명식	우기전 정하우
예배위원회	김원남	김하진	이승근 김창근 장정일
		김한홍	마성락 김경철 김원선
		홍중섭	이병학
		이승선	오진국 우기전 한경일 박치민
재정위원회	이승선	오진국	우기전 한경일 박치민
		정봉조	오정현 문옥순 김영남
		김기정	오진국 노광현 윤종성 이창업
		임광식	이병학 강모용 안윤진
건축위원회	김기정	오진국	노광현 윤종성 이창업
		임광식	이병학 강모용 안윤진
		정선화	오희명 원도화 이옥녀
		이현실	최상규
자산위원회	윤종성	고병욱	김원선 정석태 송순일
		이동규	윤종순
		고병욱	윤명식 김영개 송순일
		윤종순	
감사위원	정석태	고병욱	윤명식 김영개 송순일
		윤종순	
		윤종순	
		윤종순	
인사위원	윤종순	김기정	이태규 최석주 한명욱
		송순일	윤종성 교육위서기
		송순일	윤종성 교육위서기
		송순일	윤종성 교육위서기
사무국	최석주	오진국	정하우 이태규
		조현명	김하진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김차생	정은표 김경성 김기정 이용선

최석주	정석태	정하우	오태희
조현명	김상순	이옥녀	
등산·기도원	이동규	박창수	김은호 한명욱 강순용
신현상			
해외선교회	최석주	이창업	조선근 한경일 강순용
신현상	임광식	최성림	박치민
손동운			

3. 제직회

서 기 / 최상규	부서기 / 강모용, 송기홍	최대원
회 계 / 최성림		
구제부장 / 김방진	예전부장 / 한경일	
봉사부장 / 이희연	미화부장 / 박옥식	

4. 1982년도 명예권사(신임)

김외생 김의서 김의숙 박성기 서영희 신재환 윤봉옥
이학주 정상열 조순덕 최경숙 (계 11명)

5. 1982년도 시무권사(신임)

정송화 조동숙 김영남 고남균 한순원 장영옥 윤옥녀
나음전 김정화 백봉희 남궁규원 백순희 계순옥 김후전
최인식 필기복 이춘일 김만준 한순명 송명희 민은혜
이정옥 김유순 김송자 김귀녀 석양순 이상덕 차정은
이재봉 안옥실 백희주 선금녀 권영자 장사열 조인순
조명여 우종아 라봉도 김영삼 박영순 최복순 송경자
(계 42명)

6. 1982년도 남서리집사(신임)

김광남 김은수 한종택 이명중 이규봉 임창수 이장균
김광호 노명철 임실택 고병국 양창식 남은균 윤주현
김용석 병영배 마숙진 박태근 이구상 강완재 이종성
최승윤 임용관 송수일 김복동 황창익 김성국 박진환
채수경 이기성 조홍진 김정석 노기철 장용운 최창식
정해두 김재중 김민규 정상근 김우진 김기철 홍부식
석영식 장춘균 박인진 명배일 장영환 정재복 양서영
윤완철 이효상 (계 51명)

7. 1982년도 여서리집사(신임)

라봉에 문경희 김정례 이계자 김은희 이옥숙 한성숙
조내화 윤금자 윤순진 박옥순 박종계 우정혜 임평순
정영비 주옥환 박정남 한선옥 홍경선 김병순 정진선
최일춘 천금순 김기순 유효열 김용섭 송옥숙 홍근옥
이천애 우순성 정옥남 김숙자 김성열 손숙자 김정섭
김기순 송정자 김기덕 박명선 구희자 최명초 라영실
김경자 박홍순 김영복 신병만 조봉환 이옥남 한성실
안정자 조성남 윤재현 전부덕 유효순 송정화 안금자
김덕실 고복순 안은희 차운자 박영주 이증영 김주녀
박점순 이지영 김은숙 이인향 김경희 정은숙 송단오
사임선 김영란 남정우 이영순 김병희 이옥순 김정순
이영숙 이봉춘 박대화 정정숙 김병애 서인희 한영선
이정자 백경옥 김금순 최이수 김명희 박옥순 김명주
정영준 윤화숙 박옥임 (계94명)

8. 1982년도 명예직권사(신임)

정인애 김유금 심봉일 마창선 김이봉 (계 5명)

9. 1982년도 명예직 남집사(신임)

오동근 우기봉 송명섭 허순원 이철승 오종근 우석규
최상봉 김지길 (계 9명)

10. 1982년도 명예직 여집사(신임)

최봉희 안 업 김순준 이은금 이정분 김수남 차방희
윤두에 노오봉 문효열 박간란 김미동 황용성 박현인
홍복식 임금남 원 옥 (계17명)

11. 주일학교

주교명	지도부	부지도	부장	부감
어새부	김은숙	이진희	정운석	윤광일 명정옥
영아부	정소영		최무길	김상규 배옥인
유치부	정연희	김정자	최상규	이성원 지경애
유년부	안석열	김장근	최성현	김종구 김정자
초등부	이양우	김익경	강은원	오정수 공향조
중등부	이원길	김양래	박종준	노문환 이희수
고등부	최봉호	유태곤	김광진	서동석 문옥순
대학부	허충욱	성주진	윤인현	김보일 안춘진
청년부	이승근	김성주	하대선	손경수 손명순
장년부	김희보	윤용규	최대원	정광호 이신일
노년부	김창근	김경신	강모용	김영생 김정옥
장새1부	구명신	정금숙	송기홍	이 옥 이명자
장새2부	이성근	장영자	박인세	김환기 윤재춘
산전교육부	박동실	정관호	오정현	한현일 홍풍작
새가정부	윤영탁		엄필성	한형식 안인현

각지회 총회개최

교회 각 기관 및 지회의 총회가 연말을 맞으며 각
회별로 열렸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이
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며 내년도의 사업등
을 토의하는 등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외복음선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13회 총
회를 개최하여 선교사들의 육성녹음을 통한 활동보
고를 듣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에 최석주 장
로를 유임하도록 했다.

각 지회의 총회 결과 새로 선임된 회장단은 다음
과 같다.

부서	일자	회장	부회장
남전도회	11월 8일	이창업	오태희
제1여전도회	11월 15일	전인화	노영숙
제2여전도회	11월 15일	황정숙	이명자
산업전도회	11월 2일	홍중섭	최상규
권사회	11월 8일	박선자	심숙
			백죽심

성탄 축하 행사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서는 성탄축하음악에배 및 행
사가 각 부서에서 열렸다.

금년도 성탄축하예배는 지난 12월13일(주일) 저녁
북한선교회합창단의 축하에서 시작, 20일(주일) 저
녁에는 제일성가대의 쌍쌍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메시아중에서, 23일(수) 저녁에는 중등부성가
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24일(목) 저녁에는 고등부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25일(금) 저녁에는
유년부·초등부에서 각각 크리스마스 축하 음악에배
및 행사를 가졌다.

김영희목사

미국에 유학차 출국

김영희목사(해외복음선교회·주일학교 선교부 지
도)는 지난 12월 18일(금) 미국 유학차 출국하였다.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게 된 김
목사는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복음선교회는 오치용목사가 지도를 맡
게 되었다.

11월 12일, 새성전 상량예배

3,000여 교우가 참석

지난 11월 12일(목) 오후 3시 논현동 새성전 건축 현장에서 3천여 교우가 참석하여 은혜스러운 가운데 상량예배를 드렸다.

지난 해 4월 8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 만 1년 7개월만에 드리게 된 상량예배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사회로 송순일장로의 기도, 김원남목사의 성경봉독,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의 건축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눅 6:46~49」을 본문으로 「좋은 집을 지으려면」이라는 설교에서 상량예배를 기점으로 이미 공사준비에서부터 생각할 때 공정의 공정을 마쳤다고 격려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 9월에 입당예배를, 12월에 낙성예배를, 그리고 본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1983년 6월에는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상량예배를 기점으로 새성전건축의 골조공사를 마무리짓게 되는데 전체공정의 30% 정도가 마쳐지게 되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30여억을 넘고 있다. 앞으로 내부공사 및 교육관, 선교관의 공사가 남아 있다.

건축위원장의 새성전 건축 경과보고에 의하면 19



70년 12월에 대지를 매입한 후 71년 6월에 환지, 80년 2월에 건축허가를 얻고 1980년 4월 8일에 착공예배를 드린 후 1년 7개월동안의 공사에 연인원(11월 5일까지) 54,523명이 동원 세멘트 151,270포, 철근 2528톤의 자재가 소요되었다.

이날 상량예배후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기념 타올을 1장씩 주었고 그동안 수고한 인부 및 공사담당자에게 떡과 음료로 그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성경연구원 수료식

성경연구원은 1981년도 제 2학기 수료식을 지난 12월 6일 저녁예배시에 가졌다.

지도자양성부, 베렐성경연구, 전 교인 성경공부 및 성경통신자 수료증을 함께 가진 이날 수료식에는 지도자 양성부에서 78명, 베렐성경연구 64명, 전교인 성경공부 276명(이수자 416명)이 각각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다.

또한 성경통신강좌는 마친 200명에게 시상을 하기도 했는데 1982년도 1학기는 1982년도 3월에 시작하게 된다.

토막소식

*...어린이 새신자부는 12월 25일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영아부는 12월 25일 성탄축하

예배를 드리고 27일에는 수료 및 진급식과 학년말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유치부는 12월 25일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고 27일 수료, 진급식과 학년말 시상식을 한다.

*...초등부는 12월 6일 4학기 성

제일성가대

병원전도6주년 기념음악예배

제일성가대는 11월 27일 오후 6시 30분 제단 6년 동안 매월 둘째, 넷째주일마다 전도해온 육군 제 57 후송병원(도봉구 창동 소재)내 새생명교회에서 200여명의 국군장병 환우들과 함께 병원전도 6주년 기념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날 참석한 42명의 남녀대원들은 합창과 독창, 중창과 연주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전도위원회 후원으로 군복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타자기 1대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경시현을 치루며 13일에는 4학기 시상식을, 27일에는 수료 및 진급식과 학년말 시상식을 할 계획이다.

*...중등부는 12월 6일 정거총회를 갖고 4학기 성경시현을 치루었으며 여러회자제자무검열을 실시했다. 13일에는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23일은 성탄절 음악예배를 계획하고, 25일은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며 27일에 수료 및 진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고등부는 12월 6일 4학기 성경시험을 치루고 13일은 수료생 환송회를 가지며 25일은 성탄절 대내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7일은 수료 및 진급식과 학년말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대학부는 12월 3일 학습 평가회를 가지며, 11일은 교사기도회를, 25일은 성탄절 대내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27일 수료 및 진급식과 학년말 시상식을, 28일부터 29일 양일간은 고3생과 재수생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청년부는 12월 25일 성탄절 특별전도를 명동대신증권 앞에서 실시하며 27일 연말 시상식을, 31일은 회원 기도회로 모일 예정이다.

*...장년새신자 1부는 12월 20일 성탄축하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지며 27일, 28일 양일간 기도원에서 교사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년새신자 2부는 12월 20일 수료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며 27일 성탄절 행사를 가진다.

*...장년부는 12월 17일 교사기도회를 가지며 20일 연말 종합시상식을, 25일은 성탄절 대내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년부는 12월 18일 김영희 목사를 모시고 선교사의 동태에 관한

특강을 가지며 25일 성탄절 대내구제사업을 계획하며 27일 학년말 시상식이 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12월 6일 정기총회를 갖고 13일 친구임원회와 학습평가회를 가졌다. 24일은 직업청소년전도집회, 27일은 성탄절 축하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선교부는 12월 11일 새 성전에서 철야기도회를 가지며 19일 2학기 학습평가, 27일은 종강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새가정부는 12월 20일 김수지 선생(연대간호학과장)을 모시고 새 가정 유아교육에 대한 특강을 가지며 27일 학생 신앙간증회와 수료식을 가질 계획이다.

각 종 통 계

1981. 12. (매월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낮	I 부	223	379	총세대수	4,214
		II 부	449	1,047		
		III 부	412	804		
		IV 부	253	604		
		계	1,337	2,834		
배	주 일 저녁	삼 일 저녁	236	524	신	남 3,852 여 5,646 계 9,498
		어린이새신자부	31	29		
		영 아 부	220	158		
		유 치 부	151	162		
		유 년 부	199	203		
주	일	초 등 부	219	210	급	남 2,059 여 3,506 계 5,565
		중 등 부	166	191		
		고 등 부	115	166		
		대 학 부	56	47		
		청 년 부	66	105		
학	교	장 새 부 I	51	142	인	남 290 여 381 계 671
		장 새 부 II	13	47		
		장 년 부	24	244		
		노 년 부	37	108		
		산 업 교 육 부	20	69		
교	인	선 교 부	17	32	원	남 955 여 1,306 계 2,261
		새 가 정 부	22	35		
		합 계	3,158	5,632		

12월의 행사

- 1 일 /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 4 일 / 정기당회
- 6 일 /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7 일 - 11일 / 심령부흥회
- 9 일 / 권사회철야기도회
- 11일 / 전교인 철야기도회
- 20일 / 여전도회총회속회 · 해외복음선교회 · 실행
위원회 · 심방위원회 · 자산관리위원회
- 25일 / 성탄절
- 27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 건축위원회
- 29일 / 특별제직회

* 편집하고 나서

*...1981년이 끝나간다. 많은 일들과 슬한 사연을 안고 1981년은 또 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매년 맞는 연말, 연시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 많은 해인 것 같다. 새성전 건축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없는 감사로 남는다. 어려운 형편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한 해였던 것 같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월간충현 편집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보내는 좌담회를 가지고 1년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의 잘잘못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우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며 인식하자는 의도였

다. 특히 내년부터는 「새성전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새성전 이주를 위한 준비계획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구체화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전체의 일치된 이야기였다.

*...1년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월간충현지에 대해 격려와 비판과 사랑을 보내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새성전시대가 열리는 내년에는 월간충현도 이에 맞추어 보다 새롭고 보람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약해 본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간충현

12월호

제9권제11호

통권 제94호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편집부장 / 이형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12월 27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초등부는 10월 31일 교회근처 중무·영희·장충국민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초청잔치를 열었다.〉



〈중등부는 10월 31일 준비한 시와 찬송등으로 시와 찬양의 밤 「실롬·실롬·실롬」의 시간을 가졌다.〉



〈새가정부는 11월 5~7일까지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란 주제로 특별강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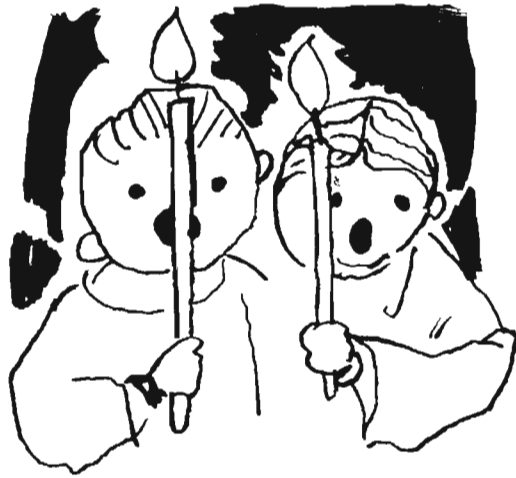
〈교회는 11월 15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 이날 저녁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순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을 맞아 각 지회에서는 총회를 실시했다. 11월 8일에 있었던 남전도회 총회〉



〈제1부 여전도회는 11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결산과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그리스도.....

실로암
못가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 : 15 - 20〉